

석사학위 논문

김소월 시의 사상적 배경 연구:

오산학교의 이상향 추구를 중심으로

김효재

2013년 2월 현대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신범순

본 논문은 오산학교의 이상향 추구를 중심으로 김소월 시의 사상적 배경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고는 김소월 시에서 황무지의 이미지로 나타나는 비관적인 현실인식이 이상향에 대한 지향과 함께 등장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전혀 상반되어 보이는 두 가지 인식이 동시에 한 시인의 시세계에 펼쳐질 수 있는 배경에 대한 질문이 본고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질문은 작가가 위치했던 현실적 맥락을 검토하는 것에서부터 연구가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연결된다.

김소월의 시에는 식민지 근대 제도의 맹점을 날카롭게 간파하면서도 그것을 넘어서려는 인식과 시도가 있다. 이러한 시도는 김소월 개인만의 사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당대 이상주의의 토대에서 여러 층위로 변주되며 발전된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김소월이 가르침을 받았던 오산학교의 이상향 운동에 주목한다. 김소월의 시세계를 뒷받침하는 사상적 토대가 오산학교라는 공동체를 배경으로 한다는 것이 본고의 중심 논지이다. 따라서 오산학교의 이상주의적 지향이 김소월의 시에 어떻게 계승 발전되어 김소월 시의 특징으로서 개인 인식을 넘어서서 조선을 인식하고 이상향 추구로 이어지는지에 주목한다.

일제시대는 제도와 권력이라는 측면에서 굴욕과 상실의 시대였다. 그러나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치열하게 고민함으로써 식민지 암흑기는 나라를 빼앗긴 슬픔과 절망이 인식의 전환점으로 탈바꿈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1910~20년대 민족종교의 융성과 상고사를 중심으로 한 역사 연구, 교육 사업을 통한 후진 양성의 활발한 움직임은 지식의 유통과 흐름을 자유롭게 했다. 그러한 움직임 속에서 다양한 지적 공동체가 생겨났으며 자기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따라서 식민지시기를 정신사적인 전환점(turning point)으로 접근할 것이 요구된다.

제도(system)를 제도가 아닌, 현실에 고정된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극복할 수 없는 거대한 장애이다. 식민지 현실을 제도에 불과한 것, 즉, 하나의 ‘system’으로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대다수의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은 탈출구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제도’의 실상, 곧 그 실체를 자각한 선각자들은 정신 및 가치 체계의 문제에 주목함으로써 오히려 ‘제도’를 활용하고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인식전환은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보는 인식범위의 확장을 전제로 하며, ‘나’라는 주체에 대한 탐색과 자기 혁신을 요구한다. 본고는 이러한 움직임의 대표적인 사례가 식민지 시대의 이상촌 운동과 이상향에 대한 추구로 나타났다고 본다. 오산학교는 식민지 시대에 그러한 이상촌 운동의 거점이었다.

2장에서는 오산학교의 정신과 전반적인 학교 분위기를 개괄하고, 이상향 추구라는 측면에서 오산학교와 신민회의 영향관계를 살펴본다. 시당 여준과 김도태, 장도빈, 이윤재 등으로 이어지는 교사들의 계보에서 일관된 흐름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의 김소월 연구에 있어서 오산학교에 대한 언급은 오산학교 시절 스승인 김억과의 문학적 교류와 영향 관계에 집중되어 있었다. 본고는 김억 이외에 김소월에게 영향을 끼쳤던 오산 관계자 및 교사들을 추적하여 사상적 영향관계를 재구해 보았다. 이에 김소월의 오산학교 재학 시절 오산을 이끌었던 남강 이승훈, 고당 조만식과 당시 역사교사였던 김도태, 산운 장도빈 등을 같이 살펴본다. 오산학교의 교육, 특히 역사 교육은 민족정신을 강조함으로써 근대의 고립된 개인과는 달리, 이상적 공동체와 연결된 새로운 인간상을 추구한다.

3장에서는 오산학교의 교육이 자기인식의 확장을 동반하면서 김소월의 시 세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나’라는 인식의 확장적 경험을 통해서 김소월은 식민지 근대의 현실에서 근대적인 제도를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가변적 구조로 파악하는 비판적인 시각을 확보할 수 있었다. 조선에 대한 인식은 “조선생명된 고민”과 식민지 근대에 대한 반감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새로운 세계 창조라는 꿈과 이상향 추구를 보인다. 김소월 시에서 새로운 세계 창조의 꿈은 시적 화자 ‘나’의 현실인식 및 성찰,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이상과 연결되어 있다.

4장에서는 김소월의 시론과 작품을 통해서 이상주의적 경향을 살펴본다. 본고는 이상향 추구가 가능한 인식적 측면에 주목한다. 김소월은 시론인 〈시흔〉에서 ‘陰影’의 인식론을 통해서 시세계에 있어 자기만의 독특한 이론적인 토대를 구축한다. 영원성, 시공 초월에 대한 인식은 식민지 제도를 가변적인 구조로 파악할 수 있는 인식상의 토대이기도 하다. 오산학교 교육에서 민족정신을 강조하며 민족의 시원인 ‘단군’을 변하지 않는 조선의 정신적 뿌리로 인식했다면, 김소월의 시세계에서는 변하지 않는 영원성으로서 ‘시흔’에 대한 인식이 있다. 김소월 시에서 시적 화자는 산 자와 죽은 자, 곤 “흘러가는 목숨들”과도 의식의 범위를 넓혀서 교류하고 소통한다. “이야기”라는 매개를 통해 ‘나’를 중심으로 공동체는 수직수평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연결과 소통은 “흘러간 목숨들”을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한다. 이 이야기 속에는 “조선의 정신”이 있고, 이야기의 전달은 정신의 전달이다. 조선생명임을 인식하고 많은 떠도는 노래들 속에 담긴 옛 조상들의 혼적과 파편을 주워 모으는 것은 이상적 세계를 재구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요컨대 김소월이 현실에 대한 깊은 절망과 허무감을 드러내면서도 ‘한’의 시인으로만 남지 않고, 이상적인 세계를 그릴 수 있었던 것은 오산학교 공동체를 정신적 토대로 해서 경계를 넘나들면서 다양한 존재들과 소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김소월이 실어 나르는 이야기와 이상향의 추구는 당대 이상향 운동의 거점이 되었던 오산학교의 이상주의에 그 사상적 토대를 두고 있다.

석사학위 논문

해방기 자전적 소설의 서술적 정체성 연구

허 선 애

2013년 2월 현대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박성창

본 연구의 목적은 해방기 자전적 소설에서 드러내고자 했던 작가의 정체성 양상을 분석하고, 자전적 소설의 양식이 해방기의 특수성에 기인한다는 점과 이 과정에서 작가는 정치적 주제로 거듭나고자 하였음을 밝히는 것에 있다. 해방기 주요 담론 중 하나였던 ‘자기비판’과 ‘성실성’은 단지 대일협력 행위를 범한 자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개인에게 요구된 정치적 주체화 과정이었다. 해방기에 요구되었던 자기비판은 개인적 체험에 대한 사실적 진술이 아니라, 과거를 반추함으로써 해방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미래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었다.

특히 문인에게 ‘자기비판’은 해방기 새로운 문학 활동을 위한 통과의례였다. 작가는 자기비판의 깊이 때문에 작가 자신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의 방향성을 모색하게 된다. 이런 시대적 상황과 외부에 대한 요구와 맞물려서 창작된 해방기 작가의 자전적 소설은 해방기의 현실과 ‘정치’에 대한 입장을 고민하게 되는 계기로서 기능한다. 자전적 소설의 작가는 글을 통해서 자신을, 그리고 자신이 외부와 관계 맷는 방식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한다. 따라서 해방기 자전적 소설은 자신의 정체성을 모색하는 과정인 동시에,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는 광장이며, 민족이라는 타자와 관계 맷는 방식을 성찰하는 자리가 된다. 이러한 과정을 소설을 통해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이광수(2장), 김동인, 채만식, 이태준(3장) 김학철, 안회남(4장)의 자전적 소설을 분석하였다.

해방기 이광수는 친일 문학자라는 명예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자전적 소설 『나』 연작을 창작한다. 『나』에서 이광수는 자신의 불우한 유년시절을 서사화하면서, 개인의 삶과 민족의 비극적 역사를 병치시킴으로써 비애감을 형성한다. 또한 이 비애감이 ‘나’를 결핍된 존재로 만들었으며, 그 결핍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훼절’이 불가피하였음을 강조한다.

김동인, 채만식, 이태준은 해방 현실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작가이다. 김동인은 「망국인기」에서 해방 이전 자신을 조선어를 사수한 문학자로 규정하며, 자신의 대일협력 원인을 가난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이 가난의 문제를 해소해준 해방기의 상황은 김동인으로 하여금 문학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한다. 하지만 「속 망국인기」에서는 해방기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다시 가난의 문제에 직면하자,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고 만다. 채만식은 「역로」에서 자신의 대일협력 행위에 대해 속죄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동시에, 그 방법과 대상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여긴다. 이런 자전적 인물의 고민은 「민족의 죄인」에서 다음 세대의 비극과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과 그들을 위한 교육자가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이어진다. 해방기의 채만식은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 있는 교육의 중요성을 자각하며,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이태준은 1941년 자전적 소설 「사상의 월야」를 연재하면서, 계몽주의자의 면모를 드러내었다. 해방 이후에도 이태준은 계몽주의자로서 정체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사상의 월야」를 개작한다. 「사상의 월야」에서 드러냈던 계몽성은 이태준으로 하여금 좌익문학단체인 조선문학가 동맹에 가담하게 한다. 이태준은 조선문학가동맹에 가담한 자신의 행동이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며, 작가 자신 또한 정치가가 아니라, 문학자라는 인식을 강하게 드러낸다. 조선문학자대회를 기점으로 이태준은 자신이 정치적 행위를 해야 한다는 인식전환을 하게 된다. 이런 자신의 변모를 보이기 위해 이태준은 「해방 전후」를 창작하게 된다. 즉, 이태준은 『사상의 월야』 개작을 통해 해방기 문학자의 자기비판 과정을 거쳤지만, 작가의 정체성이 또 한 번 변하게 되면서 이를 위해 「해방전후」를 창작하게 된다.

해방 이전 김학철은 조선의용군에 가담했으며, 안회남은 후쿠오카 탄광에 징용노동자로 있었다. 해방기 김학철과 안회남은 해방 이전의 체험을 소설로 발표한다. 김학철은 개인의 체험보다는 조선 의용군이라는 집단을 강조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조선 의용군의 모습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조선 의용군의 정체성은 「균열」에서처럼 개인의 갈등이나 고민을 회색하고, 「지네」에서 조선 의용군에 속한 인물이 명랑성을 가질 수 있게 만든다. 집단의 정체성을 자신의 모습으로 형상화하는 김학철과 달리, 안회남의 소설 「섬」에서 안회남은 징용 노동자 집단과 정서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밤」에서 징용 노동자에게서 조선인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안회남은 그들과 유대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안회남은 「그 뒤 이야기」에서 해방 이후 징용 노동자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양상을 알게 되면서 이들에게 친밀감을 형성하고, 그들의 삶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자전적 인물은 윤리적 주체로 거듭나게 된다. 또한 안회남은 그들의 삶을 단일한 공동체로 구성한다. 안회남이 추구하는 공동체의 양상은 개별성을 유지한 채 연대감을 통해 결속된다. 이 공동체 내에서 안회남의 역할은 그들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지지하는 위치에 머문다. 「불」에서는 비단 경험을 공유한 인물에만 국한되지 않고, 낯선 이에 대해서도 포용의 태도를 보임으로써 안회남이 추구하는 공동체의 외연이 확장되고 있다.

석사학위 논문

산업화 시대의 한·중 농민소설 비교연구:

이문구와 천잉송의 작품을 중심으로

손 약 주

2013년 2월 현대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박성창

본 논문의 목적은 이문구와 천잉송(陳應松) 소설을 비교함으로 산업화시대에 한·중 농민문학에 나타난 다양한 특징을 고찰해보고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농민문학의 보편적인 가치를 밝히는데 있다. 1970년대 한국에서 발생한 농민문학과 1990년대 이후 중국에 등장한 농민문학은 창작 배경과 담론, 문제의식 및 창작 방법 등에서 유사한 면모를 보인다.

1970년대 한국에서의 농민문학론은 ‘산업화시대의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고 피폐해져가는 농촌과 농민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킴으로 농민문학을 민족문화의 한 부문으로 정당하게 편입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중국에서도 농민문학은 1990년대 이후에 그 의미가 확장되면서 ‘삼농문제’를 반영한 ‘신 향토소설(농민소설)’을 대상으로만 다루던 범위를 넘어섰다. 그러나 ‘농민문학’의 상위개념인 한국의 ‘민중문학’과 중국의 ‘저층문학’은 모두 지식인은 농민의 입장에서 글을 쓸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다.

본고에서는 산업화라는 배경 속에서 이문구와 천잉송의 농민 소설이 농촌 내부의 갈등이나 외부와의 대립적인 관계를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지 각각 그 양상을 살펴본다. 이문구는 『우리 동네』 연작에서 산업화와 유신체제를 배경으로 한 농촌사회 내부의 문제에 주력하고 농민의 입장에서 정부 정책이 농촌사회와 농민에게 주는 영향과 이로 인한 긴장관계를 표현하였다. 천

잉송은 ‘신농가(神农架)계열’ 소설을 통해 민주주의의 주체가 되어야 할 말단 정치체제의 규범이 국가의 정책으로 인해 상실되는 현실을 형상화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급격한 사회 변화나 현대 문명으로 인한 상실감이나 불안감이 고향의식으로 치환되는 과정을 살피고 그들이 이상향으로 삼고 있는 농촌의 모습을 파악해 본다. 이문구의 『관촌수필』 중의 ‘고향’은 현대화의 고향 상실의 반영이며 ‘산문화’의 글쓰기 방식을 통해 구현되는데 이러한 고향은 그가 원상복구하려는 공동체의 원형이다. 이와 다르게 천잉송의 소설에 반영된 고향의식은 5·4 운동 이후 중국 지식인들의 이향과 귀향의 전통과 연관이 있다. 또한 이문구는 후기 작품인 『산 너머 남촌』과 『내 몸은 너무 오래 서있거나 걸어왔다』에서 농촌문제를 인간과 자연 및 인간본연의 문제로 해석하였으며, 민족문화의 정신과 사회정서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담고 있다. 한편 천잉송의 소설은 짙은 향토적 색채를 띠며 낙원의식을 나타낸다.

두 작가는 모두 제도권 내에서 움직이는 작가들이다. 그러나 소설을 쓸 때에는 모두 비판의식을 강하게 드러냈으며 소설 언어의 중요성에서 출발하여 주류문화에 대항하는 반문화로서 작품을 창작하였다. 본고에서는 구술적 서사와 방언, 은유와 상징이라는 소설 기법을 통해 각각의 작품이 갖는 특수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밝힌다.

이문구는 반문화로서의 ‘민간문화’를 통해 주류문화에 대항하였다. 민중으로부터 생성되고 발전된 구술적인 방식의 글쓰기가 ‘열린 텍스트’로서 당대의 ‘닫힌’ 사회상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문구는 사투리를 통해 향토성을 강조하는 한편 지배 체제의 권위를 희화화시켜 버리는데 이는 표준어 자체가 갖는 권위에 대한 도전이 되기도 한다. 천잉송 역시 언어의 ‘토속성’을 강조하는 한편 소설 속에서 은유와 상징의 기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그는 소설 속 질병이라는 메타포를 통해 불안한 사회 질서에 대한 비판과 분노를 표출하고자 했으며 생존에 대한 불안과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고독을 드러낸다.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천잉송은 소설에서 병태적인 농촌사회의 모습을 축소판으로 하여 농민의 빈곤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사회제도 자체가 지

니고 있는 불합리성을 비판하고 체제 개혁에 대한 염원을 표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이문구는 원초적인 인간의 모습 그리고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이 마땅히 자연의 법칙을 따라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민중문학의 범주를 초월한 의미로 그가 농민소설에서 표현하고자 한 것은 거대하고 전면적인 농촌사회의 모습이다.

한·중 양국 농민문학에 대한 재인식은 한편 한국문학과 중국문학, 한국과 중국을 이해하는 새로운 활로를 구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양국 작가들의 시선을 알 수 있게 한다. 한·중 대표적인 농민문학 작가인 이문구와 천 잉송의 비교를 통해 동아시아 문학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볼 수 있다.

석사학위 논문

이효석 소설의 신화적 상상력 연구

이지은

2013년 2월 현대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방민호

본 논문은 신화적 상상력이라는 시각을 통해 이효석 문학을 일관성 있게 규명하고, 나아가 신화에 내포되어 있는 작가의 현실 인식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효석은 “眞實의 表現을 手段으로 窮極에잇어서는 美意識을喚起시켜 詩의境地에到達”하는 것을 소설이라고 한다. 이때 이효석의 미의식은 시정신과 독립되어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 선학의 연구에서 시정신이 서정소설이라는 소설의 형식적 차원으로 환원되었다면, 미의식에 관한 연구는 주제론적 접근으로 일관한 경향이 있다. 본고는 “진실”, “미의식” 그리고 문학의 최종 심급으로서 “시적 경지”가 종합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것을 신화로 보고, 이효석 소설에 나타나는 신화적 상상력을 연구하였다.

본고에서 ‘시정신’은 낭만주의자들의 포에지(poësie)로 정의했다. 그것은 인간 존재 안의 창조적 힘을 가리키는 말로, 인간의 창조적 힘을 자연 안의 생산적 원리와 동일시함으로써 인간과 세계의 통합을 지향한다. 그런데 이 때, 인간과 자연, 예술과 학문의 통합은 바로 신화로 귀결된다. 모든 이념들을 포괄하고 있는 이성의 최고 활동이란 심미적 활동이며, 진리와 선을 오직 아름다움 속에서만 통합될 수 있는데, ‘미’ 안에서 진리와 선을 통합한 것이 바로 신화이다. 신화는 심미적 활동의 근원이 되며, 따라서 예술의 원천이 된다. 예술은 특수자를 통해 절대성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예술가는 특수자 속에서 무한자의 절대성을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객관적 실제를 넘어, 존재가 가지고 있는 포에지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상상력

(Einbildungskraft)이다.

이효석은 문학을 통해 “신비”를 놓고 “환상”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의 수필과 소설 곳곳에는 “꿈을 보는 눈”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상상력이다. 소설에서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소재는 능금, 오리온, 에덴과 같은 신화적 상징들이다. 신화가 진리와 선을 통합한 아름다움, 포에지 그 자체라고 할 때, 이효석이 소설에서 창조하는 신화적 세계는 바로 “美意識을喚起시켜” 도달하는 “詩의境地” 바로 그것이다. 또한, “詩의境地”에 도달하기 위한 표현 수단인 “眞實”은 객관적 실제 그 자체가 아닌 “꿈을 보는 눈”, 즉 상상력을 통해 파악한 리얼리티인 것이다.

2장에서는 먼저, 이효석 문학론을 규명하는 데 단초가 되는 진실의 개념을 검토한다. 진실이 사용된 최초의 용례는 1929년 이효석의 경성제국대학교 졸업논문에서 발견된다. 그는 이 논문에서 ‘reality’의 번역어로 현실과 진실을 각각 구별하여 사용한다. 용례를 분석해 보면, 현실이란 감각적으로 지각되는 실제를 의미하고, 진실은 감각적 사물 이면에 존재하는 내재적 본질을 의미한다. 내재적 본질은 미 혹은 생명으로 표현되는데, 그것은 존재의 내면에 있는 시정신이다. 작가는 이러한 시정신을 포착하는 눈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상상력이다. 본고는 상상력의 작용을 형상화 하는 것으로 이효석 문학에 나타난 안개를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계급문학과 관련하여 기독교 신화가 나타나는 양상을 고찰하였다. 이효석의 초기 계급문학을 대표하는 단편집 『노령근해』에서 기독교 신화는 사회주의 유토피아를 환기하는 소재로 차용된다. 초기 계급문학적 성격을 띠는 이효석의 소설에는 기독교와 사회주의가 쌍을 이루어 나타난다. 한편, 기독교 신화는 사회주의에서 이탈해 가는 작가의 내면 심리를 표출하는 소재가 되기도 한다. 이효석은 능금을 통해 사회주의와 기독교의 금욕주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능금의 위반으로 제기된 인간 본연의 생명력에 대한 탐구는 ‘식과 색’의 옹호로 나아가고, 이는 ‘식(食)=색(色)=성(聖)’으로 심화된다.

이효석은 ‘식과 색’에 관한 자가의식을 회립의 조화를 통해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회립의 조화는 무조건적인 금욕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자기 절제

와 균형을 의미한다. 더불어 조화는 아름다움의 기준이기도 한데, 따라서 희
랍의 ‘미’는 자기 절제의 덕성과 육체적 아름다움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
다. 『화분』과 『벽공무한』에 나타나는 그리스 신화와 조화의 정신은 이러한
문제의식과 궤를 함께한다.

4장에서는 일제 말기 장편소설 『화분』과 『벽공무한』에 나타나는 그리스
신화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화분』에는 그리스 신화가 서사 단위로 차용되
어 있는데, 이효석은 신화의 변용을 통해서 현실 구원의 가능성으로서 음악
을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음악은 지리적 구별을 넘어선 보편성을 지닌다.
이때 보편성이란 공동체 내에서 공유되는 것을 전제로 성립하는 개념이다.
본고는 이러한 공통성을 표상하는 것이 음악이라 보고, 이에 따라 ‘녹성음악
원’은 아름다움과 덕성이 일치된 상태 즉, 조화의 정신을 공유함으로써 구성
되는 이상적 공동체라고 해석하였다.

석사학위 논문

1970년대 역사극의 재현 방식 연구

김민조

2013년 2월 현대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양승국

본 연구의 목적은 1970년대 연극계에서 ‘현대적 형식’으로서 역사극 장르의 가능성이 부상한 현상에 주목하여, 연극을 통해 역사를 재현하는 방식이 이 시기에 전환을 맞이하게 된 계기와 그 의미를 규명하는 것이다. 1970년대 역사극에 대한 선행 연구는 대체로 정치주의적 관점에 입각하여 지배 담론에 대한 협력과 저항이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으로 역사극 텍스트들을 재단해왔다. 그러나 선행 연구의 관점은 협력 대 저항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있는 ‘제3의 역사극’의 존재를 도외시한 탓에 1970년대 역사극의 전체적인 지형도를 정립하는 데 실패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문제점은 선행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규명하지 않은 ‘제3의 역사극’들이야말로 동시기에 전대의 역사극과 질적으로 구별되는 현대적 형식의 역사극으로 주목받았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한국 역사극의 통시적인 흐름 속에서 1970년대 역사극 현상이 갖는 의미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① 1970년대 역사극 텍스트를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유형화하고 ② 양적 팽창이 아닌 질적 변화의 관점에서 1970년대 역사극의 의의를 해명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본 연구는 역사극의 부흥(復興)을 1970년대적 현상으로 간주하는 가운데, 장르의 갱신을 이끈 핵심적인 계기들을 검토하기 위해 역사가 연극을 통해 재현되는 방식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역사극은 본질적으로 역사와 연극의 결합태로 존재하는 장르이다. 따라서 역사극은 ‘역사’라는 실체에 대한

사유와 ‘연극’이라는 재현매체의 특성이 만나는 지점에서 해명될 수 있다. 본 연구는 1970년대 역사극이 역사 인식과 연극 인식의 변화가 상호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물이라는 가정 하에 각각의 변화를 이끈 동인들을 추적하여 설명하고자 했다.

역사 인식의 변화와 관련하여, 1960년 4·19 혁명부터 1972년 10월 유신 선포에 이르는 기간 동안 역사의 진보에 대한 신념이 회의주의적 태도로 전환하는 경향이 발견됨을 지적하였다. 1970년대는 역사의 교훈적 기능을 신뢰하는 계몽주의적 역사관이 퇴조하고, 역사가 진보 없이 반복될 수 있다는 허무주의 내지는 회의주의 역사관이 자리 잡기 시작한 시기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역사 자체의 효용과 가치를 반성적으로 돌아보는 경향은 역사를 재현하는 예술의 독자적인 형식과 가능성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연극 같은 공연예술에 있어서 재현은 단순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되는 것이며, 무대 위의 역사는 극작가가 재현체들을 선택하고 배열하는 방식에 따라 매순간 유동적으로 변화한다. 즉 역사 그 자체는 아무 교훈도 주지 않는다는 회의주의적 인식이 확장되던 분위기 속에서, 이미 알려진 역사를 새로운 각도에서 재현할 수 있는 연극의 대안적 가능성이 발견된 것이다.

1970년대는 극장, 극단, 이념, 사조, 양식 등 연극의 환경을 이루는 제 요소들이 다양한 양상으로 분화되어 나간 시기였으며, 역사극의 발전 또한 상이한 경향에 의해 복합적으로 전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970년대에 발표된 역사극 텍스트들을 ‘스페터클 역사극’, ‘상상적 역사극’, ‘메타 역사극’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살펴본다. 본문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국립극단에 의해 상연된 ‘스페터클 역사극’을 다루었다. 대극장 환경의 기술적 요소들과 전속단체들 간의 협업체제를 활용하여 거대한 역사적 스페터클을 조직하는 방식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상상적 역사극’에 대해 다루었다. 역사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상상계로부터 비롯하는 원형적 요소들을 도입하여 역사의 이면적인 법칙과 운동을 드러내는 역사극 텍스트를 살펴보았다.

끝으로, 제4장에서는 ‘메타 역사극’을 다루었다. 메타드라마 기법을 역사

극 장르에 도입함으로써 역사 재현 자체를 문제 삼고, 역사와 현재 사이의 경계 혼란을 유도하는 유형의 텍스트들을 살펴보았다.

석사학위 논문

고전장편소설의 복장전환 화소 연구

최 어 진

2013년 2월 고전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정병설

이 논문은 고전장편소설에 나타난 복장전환(服裝轉換) 화소의 특징과 문학적 기능을 밝히는 데 일차적 목표를 두었다. 그리하여 조선후기 고전장편소설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 화소의 존재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했다. ‘복장전환’은 ‘이성의 옷으로 갈아입고 성별을 교체하는 행위’이며, ‘복장전환 화소’는 고전소설의 역할교체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성별교체담’의 일부이다.

고전장편소설 속 복장전환은 서사적 기능에 따라 1) 애정실현형, 2) 애정갈등형, 3) 영웅부각형으로 나뉜다. 애정실현형은 복장전환이 등장인물의 애정 욕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 기능하는 경우를 가리키며, 애정갈등형은 복장전환이 애정 상대로 설정된 인물 간의 갈등 형성의 계기 및 소재로서 기능하는 경우를 말한다. 영웅부각형은 복장전환이 위기와 고난에 대처하는 복장전환자의 영웅적 성격을 부조하는 데 기여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때 한 인물의 복장전환이 반드시 한 가지 유형에 종속되는 것은 아니다. 고전장편소설 속 복장전환은 경우에 따라 착종(錯綜)되거나 복합적 형태를 띠고 존재하고 있으며, 세 기능이 한 인물의 복장전환을 통해 동시에 구현되기도 한다.

복장전환 화소의 서사적 효과는 1) 남성 우위의 속이기 구현, 2) 여성수난담의 형성, 3) 인물 외양 묘사의 확대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나타난다.

복장전환 화소가 삽입되면서 서사는 속고 속이는 이야기가 된다. 이 때

남성 복장전환자들은 복장전환을 이용해 그들이 처한 불리한 처지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바꾼다. 불평등한 관계를 전복시키기도 한다. 남성 복장전환자들의 복장전환은 속이기의 기능을 십분 발휘하는 것이다. 한편 여성 복장전환자들은 자신의 실체가 탄로 날 것이라는 불안감에 시달린다. 그리하여 여성인물의 복장전환은 속이기로서의 효과가 반감된다. 전복의 가능성 역시 차단된다. 심지어 여성 복장전환자는 남성 인물에 의해 속이는 자에서 속는 자로 지위를 전복당하기도 한다. 복장전환 화소가 구현하는 속이기 서시는 어느 경우에나 남성의 우위를 확인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복장전환 화소가 남성 중심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복장전환 화소는 여성수난담을 형성·확대하는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일부 작품 속 여성들은 정절이나 효 등 가부장제 사회가 중요시하는 덕목을 지키기 위해 남장을 하고도, 도리어 정절을 잃었을 것이라는 혐의를 입을까 수치심에 시달리며 전전긍긍한다. 이 때 여성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애정을 강요하는 남성인물에 의해 여성은 수난을 겪게 된다. 여성 스스로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경우에는 복장전환이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고 갈등으로 번져나가기도 한다. 이처럼 복장전환 화소는 여성 인물들의 수난담으로 이야기를 확장시키면서 조선사회 상층 여성의 삶의 문제들을 여실히 담아내고 있다.

복장전환 화소는 서사 내 인물들의 외양 묘사를 확대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복장전환은 옷을 통한 성별의 전환을 다루기 때문에, 복장전환 화소가 삽입되면 등장인물이 옷을 갈아입는 과정이나 옷을 갈아입고 난 후 변화된 모습이 장면전개를 통해 서사에 제시된다. 등장인물들이 복장전환자의 성 정체성을 오인하거나 실체를 파악하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인물 외양 묘사가 확대되기도 한다. 요컨대 복장전환 화소는 서사적 필요에 의해 작품 내 인물의 외양 묘사를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고전장편소설 속 인물 묘사는 인물의 외양 자체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복장전환 화소를 통해 확대되는 인물 외양의 묘사는 인물의 외양 그 자체에 대한 당대 향유층의 관심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복장전환 화소는 향유층의 독서 행위와 관련하여 1) 금기의 오락적 향유, 2) 성적 욕망의 충족, 3) 남녀지기(男女知己) 환상의 실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복장전환 화소는 조선사회에서 혐오스러운 것으로 인식되던 인간의 양성을 긍정하고 이를 즐거움의 대상으로 치환시킨다. 한편 복장전환자를 통해 자유로운 공간의 이동을 보여주기도 한다. 일상에서 금기시 되었던 요소들이 복장전환을 통해 오락적으로 향유되는 것이라 하겠다. 복장전환 화소가 형상화하는 금기의 위반과 일탈은 독자를 자유와 해방의 영역으로 이끌어 작품에 대한 몰입도를 높인다.

한편 복장전환 화소는 복장전환자와 주변인물이 주고받는 관음적 시선을 통해 독자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한다. 나아가 복장전환자의 아름다움 때문에 주변인물들이 복장전환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장면을 묘사하여 독자에게 성적 욕망의 충족을 제공하기도 한다.

복장전환 화소는 남녀 등장인물이 서로의 성별을 오해하게 하여 결연을 지연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남성끼리의 관계에서나 가능할 법한 남녀 사이의 지적 교류를 보여준다. 이는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했던 상호 평등을 전제로 한 남녀의 연애를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유층들의 남녀지기 환상을 실현시키는 의미를 지닌다.

석사학위 논문

〈강수(降水)〉 명칭의 분절구조에 대한 연구

예 육 군

2013년 2월 국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김창섭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에 있어서 〈기후〉 명칭에 해당하는 하위 부류 〈강수〉 명칭의 분절구조를 연구하는 것이다. 또한 어휘의 분절구조에 의하여 〈강수〉 명칭의 분절구조를 발견하고 〈강수〉 명칭에 속하는 단어들의 정신세계를 해명하는 것이다. 언어는 〈언어의 구조+해당 민족의 언어에 대한 그 민족의 특수적인 이해〉라는 특성을 지닌 것이라 한다. 독일의 언어철학자 훙볼트(W. von Humboldt)가 제안한 동적언어관의 개념을 통해 〈강수〉 명칭의 분절구조를 연구한다.

본고의 연구에서 제시된 단어는 모두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단어들이다. ‘액체 강수’의 ‘비’, ‘언 강수’의 ‘눈’ 또는 ‘어는 강수’에 속하는 ‘어는 비’와 ‘비와 섞인 눈’에 관한 단어들은 총 324개 나왔다. 그 중에 고유어가 103개, 한자어가 194개, 혼종어가 27개이다. 그리고 〈강수〉 명칭의 분절구조를 통하여 과학한 단어의 현재 사용 상황에 대해 언어관계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2장에서는 〈강수〉 명칭의 원어휘소를 설정하고 기본 구조를 논의한다. 〈강수〉 명칭의 원어휘소는 [액체 강수], [언 강수], [어는 강수]로 설정한다. 〈강수〉 명칭의 기본 구조는 〈액체 강수(비)〉, 〈고체 강수(눈)〉, 〈액체와 고체가 섞인 강수(어는 비, 비와 섞인 눈)〉로 분절이 된다.

3장 〈액체 강수〉 명칭의 분절구조에서는 〈강수의 상태〉, 〈강수의 시기〉, 〈강수에 대한 인식〉으로 하위 분절을 하였다. 〈상태〉에 따르면 〈강수강도〉

의 아래에는 〈강한 강수〉, 〈약한 강수〉, 〈기타의 강수〉로 분절이 된다. 〈강한 강수〉에서는 〈기세-강〉, 〈기세-강+갑자기〉, 〈시세-강+오다가 그친 비〉, 〈기세-강+동반〉, 〈기세-강+빗줄기의 형태-굵다〉, 〈기세-강+많은 양〉, 〈기세-강+오랫동안〉으로 분절이 되어, 〈기세-강+오랫동안〉에서는 다시 〈며칠 동안 계속해서 내리는 비〉, 〈장마〉로 하위분절되었다. 〈약한 강수〉에서는 〈조금〉, 〈빗줄기의 형태-가늘다〉, 〈안개처럼〉, 〈바람 동반〉, 〈조용하고 성기다〉로 분절이 된다. 〈기타의 강수〉에서는 〈지역〉, 〈성분〉, 〈동반〉으로 분절이 된다. 〈시기〉에 따르면 〈계절〉과 〈기타〉로 분절이 되고, 〈계절〉에서는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분절이 된다. 〈인식〉에 따르면 〈좋은 비〉, 〈나쁜 비〉, 〈비유(비가 아님)〉로 하위분절이 되고, 〈좋은 비〉에서는 다시 〈농사철〉이 분절이 된다.

4장 〈언 강수〉 명칭의 분절구조에서는 〈강수의 상태〉, 〈강수의 시기〉, 〈강수에 대한 인식〉으로 하위분절하였다. 〈상태〉에 따르면 〈강수강도〉, 〈적설〉, 〈지역〉으로 분절이 되고, 〈강수강도〉에서는 다시 〈강한 강수〉, 〈약한 강수〉로 분절할 수 있다. 〈강한 강수〉에서는 다시 〈형태-굵다〉, 〈많이 내림〉, 〈동반〉으로 분절이 되고, 〈약한 강수〉에서는 〈형태-가늘다〉, 〈안개처럼〉, 〈가늘고 성기다〉로 분절이 된다. 〈적설〉에서는 〈않음〉, 〈오랫동안 녹지 않음〉, 〈기타(보존상태)〉로 분절이 된다. 〈시기〉에 따르면 다시 〈계절〉, 〈밤사이〉, 〈기타〉로 분절이 된다. 〈인식〉에 따르면 〈비유(눈)〉, 〈비유(눈이 아님)〉로 분절이 된다.

5장 〈어는 강수〉 명칭의 분절구조에서는 〈어는 비〉와 〈비와 섞인 눈〉으로 하위 분절이 된다.

6장에서는 본고의 논의를 요약하고 남은 문제를 검토하였다.

석사학위 논문

경북 방언의 용언 성조형 연구

최보람

2013년 2월 국어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김성규

본고의 목적은 현대 경북 방언의 1음절 용언 성조 실현 양상을 살펴 유형화하고, 이를 15세기 한국어 성조와 비교·대조하는 것이다. 경북 방언은 같은 동남방언에 속하는 경남 방언과 달리 상승조를 가지는 성조 체계이고, 따라서 다른 방언에 비하여 15세기 한국어와의 대응을 보이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본고에서는 경북 방언의 경계 설정이나 하위 방언권 설정에 대한 기간 논의를 바탕으로 경주, 대구, 문경, 청송, 울진, 포항의 여섯 개 지역어를 선정하여 성조 실현 양상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경북 방언 1음절 용언 어간의 성조형을 분류하고자 하였다.

15세기 한국어의 1음절 용언 어간 성조형은 고정적 평성형, 고정적 거성형, 평거 교체형, 고정적 상성형, 상평 교체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경북 방언의 1음절 용언 어간 성조형은 고정적 고조형, 고저 교체형, 고정적 상승조형, 상고 교체형, 하강조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고정적’이 앞에 붙은 유형은 어간의 성조가 항상 평성거상상성, 또는 고조상승조로만 나타나는 유형이고, ‘교체형’이 뒤에 붙은 유형은 후행어미에 따라 어간의 성조가 변동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각 유형의 명칭은 어간 성조의 변동 양상이 명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다. 이 중 하강조형과 상고 교체형의 하위분류인 RH \sim HH형은 다른 성조형에서 유추되거나 음절의 축약으로 형성된 것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유형으로 보았다.

지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울진, 포항 지역어는 상승조 뒤에 항상 저조만

올 수 있는 성조 배열 제약을 가지고 있다. 이는 동해안 지역어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동해안 지역어에 속하지 않는 청송 지역어도 같은 성조 배열 제약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성조 측면에서 청송, 울진, 포항 지역어는 같은 방언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15세기 한국어의 고정적 거성형, 고정적 상성형, 상평 교체형은 각각 경북 방언의 고정적 고조형, 고정적 상승조형과 상고 교체형에 대응하며, 고정적 평성형은 고저 교체형에 대응한다. 앞의 세 유형은 15세기 한국어의 첫 거성이 한 음절 앞당겨진 위치에 경북 방언의 첫 고조가 대응하는 일반적인 대응 원칙(예기 발음, anticipated pronunciation)을 따르지만, 뒤의 두 유형은 이러한 원칙에 어긋나는 양상을 보인다. 일반적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 가장 주요한 원인은 선어말어미 ‘-다’에 있다. 이는 강어미 중에서도 특이한 성조를 보이던 ‘-다’가 다른 강어미 계열과 비슷한 방향으로 변한 것으로 보았다. 평거 교체형에 대응하는 경북 방언 어간들은 여러 가지 성조 실현 양상을 활용 패러다임 안에 모두 가진다.

유형별 대응에서 벗어나는 용언들의 경우, 비슷한 음절 구조를 가진 다른 성조형에서의 유추나 어미의 특이한 성조가 원인이 된다. ‘비-(視)’와 ‘아-(眞)’는 15세기 한국어에서 고정적 상성형이나 경북 방언에서는 하강조형으로 나타나는 예로, 기원적으로 ‘-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15세기 ‘쏘-(射)’나 ‘홰-(燈)’에 해당하는 경북 방언의 성조는 모두 고정적 고조형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고정적 거성형의 어간 초성이 자음군이거나 격음인 것에 유추되어 현대에 고정적 거성형으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중세국어의 성조형과 현대 동남방언의 성조형이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은 기간 논의에서도 지적되어 왔다. 본고는 유형의 대응을 보이는 것에서 더 나아가 대응에서 벗어나는 예들의 원인을 찾고자 하였다. 중세국어의 어간 성조가 어간 말음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여러 논의에서 지적한 바 있는데, ‘쏘-(射)’와 ‘홰-(燈)’ 등의 대응 예외를 살펴보면 현대 방언으로 오면서 어간의 초성이 어간 성조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연구에서 이러한 음절 구조와 성조의 관계에 대하여 더욱 깊이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석사학위 논문

한국어 양태부사 ‘과연(果然)’에 대한 연구

마 영

2013년 2월 국어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김창섭

본고는 양태부사 ‘과연(果然)’의 의미를 세분화하고, ‘과연’의 의미·통사적 특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연’의 예문을 통하여 ‘과연’을 각각 ‘시인(是認)’의 ‘과연1’, ‘감탄’의 ‘과연2’, ‘의심, 의문’의 ‘과연3’으로 나누었다. 본고의 논의는 총 5장으로 구성되었다.

1장에서는 본고의 연구 목적, 방법과 대상을 밝히고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2장에서는 ‘과연’이 양태부사이므로 양태부사의 정의와 하위분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에서 양태부사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이루어졌다. 이들은 모두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부사’라는 관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3장에서는 먼저 ‘과연’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 다음에 ‘과연’의 예문을 관찰하여 ‘과연’을 ‘시인(是認)’의 ‘과연1’, ‘감탄’의 ‘과연2’, ‘의심, 의문’의 ‘과연3’으로 나누었다. ‘과연1’은 갖고 있는 지식과 ‘과연’ 뒤에 나오는 사실이 같다고 확인 할 때에 쓰이고, 화자의 ‘시인(是認)’의 태도를 표현하는 것이다. 화자가 보통 긍정적인 예상을 많이 하고 예상이 그대로 실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화자가 ‘과연’ 뒤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 보통 강한 확실성을 갖고 있다. 중국어로 번역할 때는 ‘果然(guaran)’으로 해야 한다. ‘과연2’는 ‘과연’ 뒤에 나오는 사실과 같다고 할 수 없고, 그것의 속성을 연상하여 ‘감탄’의 태도를 표현하는 것이다. 화자가 항상 긍정적

인 예상을 한다. 중국어로 번역할 때는 ‘不愧(bukui)’로 해야 한다. ‘과연3’은 미확인된 사태에 대해 화자의 ‘의심, 의문’의 태도를 표현하는 것이다. 화자가 단순히 궁금하다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예상도 많이 하고, ‘과연’ 뒤에 나오는 내용에 대한 확실성이 매우 낮은 편이다. 중국어로 번역할 때는 ‘과연1’이나 ‘과연2’에 해당하는 ‘果然(guoran)’이나 ‘不愧(bukui)’로 할 수 없고 ‘果真(guozhen)’이나 ‘究竟(jiujing)’으로 해야 한다.

4장에서는 각각 ‘과연’의 통사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과연1’은 주로 평서문과 감탄문에 나오고, ‘과연2’는 주로 ‘이다’ 구문에 쓰이지만, ‘이다’가 생략될 수도 있다. ‘과연3’은 의문문에서만 나타난다. ‘과연1’과 ‘과연2’는 미래 시제와 잘 안 어울리고 ‘과연3’은 시제 제약이 없다. ‘과연1’과 ‘과연3’은 부정문을 수식할 수 있지만, ‘과연2’ 뒤에 부정문이 올 수 없다. ‘과연1’과 ‘과연3’은 인칭 제약이 없지만 ‘과연2’는 인칭 제약 심하고 3인칭에게 가장 잘 어울린다. ‘과연1’은 생략이 가능하고, ‘과연2’는 생략될 수 없으며, ‘과연3’은 일반 경우에 생략될 수 있지만, 예외현상도 있다.

마지막 5장에서는 본고의 논의를 요약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았다.

석사학위 논문

평북 초산 지역어의 불규칙 활용에 대한 연구

윤 매령

2013년 2월 국어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송철의

평안도 방언은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이 지역어만의 음운적, 문법적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다. 표준어, 혹은 중앙어와 공통점을 많이 가지면서도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서 평안도 방언의 한 하위 방언이라 할 수 있는 초산 지역어를 대상으로 용언의 불규칙 활용을 고찰하였다. 그런데 현재 북한 지역에 가서 직접 방언 조사를 하기는 어려우므로 본고에서는 중국 길림성 통화지역 집안현(集安縣)으로 이주해 살고 있는 평북 초산지역 이주민들의 발화를 통해 평북 초산 지역어에 나타나는 용언의 불규칙 활용양상을 살펴보았다.

북한에서 방언을 모두 ‘문화어’로 통일하려는 강력한 언어정책을 펴고 있어서 ‘전통적인 방언’이 급속도로 소멸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의 조선족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한국 위성방송이 대부분 들어와 있고 또 9년제 의무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방언을 고수하여 쓰는 사람은 점점 적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방언을 수집, 정리하는 일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방언의 형태론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음운론적 고찰, 어휘론적 고찰과 더불어 특정 방언의 특성을 규명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초산 지역어를 대상으로 형태론적 연구의 일부인 불규칙 활용 양상에 대해 전반적으로 연구한 업적은 찾아보기 힘들다. 불규칙 활용에 대한

업적으로 일찍이 알려진 평안 방언의 ‘듣다’의 규칙 활용에 대한 연구가 있고 표제어에 ‘불규칙 동사’의 유형을 표기해 준 김이협(1981)이 있다. 하지만 방언사전인 김이협(1981)에서는 해당 표제어가 사용되는 지역들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이 사전에 실려 있는 자료를 가지고 어느 한 특정 지역의 불규칙 활용 양상을 전반적으로 고찰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각 방언은 중앙어, 혹은 다른 방언과 차이점을 가짐과 동시에 공통점도 공통점도 가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한 방언의 특정 현상에 대한 언급에서 해당 방언의 특징적인 측면만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공통되는 부분도 밝혀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산 지역어를 대상으로 이 지역어에 나타나는 용언의 불규칙 활용 양상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초산 지역어의 불규칙 활용이 표준어와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며 어떤 차이점을 가지는지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의 주제보자는 필자의 외할머니이기 때문에 일상 대화를 나누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연발화를 녹취하였다. 그리고 부제보자는 조선족 학교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문법을 접할 기회가 없어서 이 지역어를 그대로 잘 보존하고 있었다. 주제보자의 자연발화에서 의문이 가는 점이 있으면 부제보자에게 확인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본 논문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연구목적 및 연구사를 살펴보고 조사지역·제보자 정보 등 조사 자료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2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불규칙 활용을 논하기 전에 본고에서 사용할 불규칙 활용의 개념과 기저형의 설정 방법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이 지역어의 음운목록과 특성, 음운 현상을 간략히 기술하고, 그리고 본고의 기술에 필요한 이 지역어의 어미들을 자음어미, ‘아’계 어미, ‘으’계 어미로 나누어 그 목록을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초산 지역어의 불규칙 활용 양상을 다루었는데 이 지역어에는 ‘굵/굴구-’(굵다)류, ‘걸/걸’(걸다)류, ‘허/해-’(허다)류, ‘많/마네-’(많다)류, ‘걸/거테-’(걸다)류, ‘낫/나으-’(낫다)류, ‘잡순/잡수-’(잡수다)류, ‘덥/더우-’(덥다)

류, ‘모르/몰르-’(모르다)류, ‘다릉/달르-’(다릉다)류, ‘뛰/뛰-’(뛰다)류, ‘푸/펴-’(푸다)류 등 12가지 불규칙 활용이 있다. 여기서 ‘굵/굴구-’는 이 지역에만 나타나는 특이한 활용형이다. 기존의 평안방언 선행연구에서 ‘넓(寬)-, 얕(薄)-, 짧(短)-, 길(長)-’의 어간으로 나타난다는 내용은 언급한 적이 있지만 ‘길-’이 ‘길귀서, 길구문’과 같이 불규칙 활용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새로운 부분이다. ‘새깜허다(새까맣다, 黑), 둥글허다(둥그렇다, 圓)’와 같이 기원적으로 ‘허다’에서 파생된 색채류와 모양류 형용사는 이 지역어에서 ‘새깜허구, 새깜허문, 새깜허다’와 같이 ‘허/해-’(허다)류에 속하고 있었다.

석사학위 논문

중세한국어 자·타 양용동사에 대한
기능·유형론적 연구

김태우

2013년 2월 국어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이현희

이 글은 중세한국어의 자·타 양용동사를 범언어적인 자료와 비교·대조 함으로써 유형론적 특성을 논하고, 기능론적인 존재 의의를 밝힌 것이다.

중세한국어에는 크게 두 종류의 자·타 양용동사가 존재하였다. 하나는 자동문의 주어와 타동문의 목적어가 동일한 논항을 공유하는 구문이 짹을 형성하는 동사로, 본고에서는 이를 진정한 자·타 양용동사로 보았다. 다른 하나는 목적어가 대격 이외에 처격 혹은 도구격으로 표지되는 구문을 형성하는 동사로, 의미적 타동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사(擬似) 자·타 양용동사라고 이름하였다.

중세한국어의 자·타 양용동사와 관련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원형적 타동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타동성과 관련된 범언어적인 현상을 분석한 결과 중세한국어의 문장은 사건에 참여하는 개체의 수, 목적어의 영향입음성, 주어의 사태 통제성의 정도에 따라 타동성이 변동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타동성의 변동이 격틀에도 영향을 미쳐 자·타 양용동사의 성립을 촉발한 것이다.

본고는 이와 같은 이론적 기반을 바탕으로 자·타 양용동사와 의사 자·타 양용동사에 접근하였다. 자·타 양용동사에 대해서는 Letuchiy(2009)의 자·타 양용동사 유형론에 기초하여 분류하고, 그들이 나타난 중세한국어 예문을 확보하였다. 그 결과 중세한국어에는 기동문과 사동문으로 교체하는

문형을 형성하는 (반)사동 유형의 자·타 양용동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117개의 자·타 양용동사 가운데 80% 이상이 (반)사동 유형의 자·타 양용동사였다.

의사 자·타 양용동사는 언어 유형론에서 비정형적 목적어 표지라고 불리는 현상과 동일했다. 목적어가 사격으로 표지되는 이 현상은 동사의 어휘의 미, 즉 목적어의 영향입음성과 사태의 통제가능성에 의해 표상되는 것으로, ‘상태나 장소의 변화’ 의미를 가진 동사의 경우에는 목적어가 도구격으로 표지되고, 인자·사유·심리동사들의 경우에는 목적어가 처격으로 표지됨이 관찰되었다.

한편, 중세한국어에는 같은 동사가 형용사와 타동사로 교체하는 구문도 존재하였다. 형용사가 목적어를 가지는 타동사로 전용될 경우 그 뜻은 ‘[형용사] 하게 하다’라는 사동의 의미를 가진 예가 많았다. 하지만 일부 심리동사에 대해서는 ‘[형용사]라고 생각하다’라는 의동(意動) 의미로의 교체도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석사학위 논문

국어의 음소구조조건과 음운현상

이영환

2013년 2월 국어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김성규

생성음운론에서는 음들의 특성을 뽑아 변별 자질(distinctive feature)을 설정하여, 모든 음들을 이 자질들의 묶음(bundle of features)으로 설명한다. 또한, 음운현상 역시 이 자질들의 변동 및 변화로 설명한다.

그런데, 변별 자질로 음운현상을 설명할 때에, 두 개 이상의 변별 자질의 자질값이 변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자질값이 변한 모든 변별 자질이 해당 음운 현상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 음운현상의 원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질값이 변하는 임여성이 등장하게 된다. 이 임여성에 대해서, 그동안 임여규칙을 통해 설명하려는 여러 논의가 있어 왔지만, 하나의 음운 현상을 음운규칙과 임여규칙으로 나누어 설명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본고는 이런 현상을 음소구조조건이라는 개념을 설정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한 언어 내에서 각 음소는 어떤 특성을 지니며 어떤 음성으로 실현되는지에 대한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음소구조조건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 음소구조조건을 통하여 음운현상의 임여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제약’이 아닌 ‘조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제약과 달리 조건은, 임여성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 2장에서는 음소구조조건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음소구조조건은 자질들의 결합 양상에 의한 자질결합조건과 음소의 실현 양상에

의한 음성실현조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특히 음성실현조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질로 설정하지 않는 음의 길이 등도 요소로써 사용하였다. 더불어, 음소구조조건을 설명하기 위해, 본고에서 사용할 한국어의 변별적 자질을 설정하고, 그 변별자질들을 사용하여 국어의 음소 체계를 정리하였다.

이후 3장에서는 국어에 나타나는 음소구조조건을 확인하였다. 국어에 없는 조건을 본고에서 새롭게 설정하였다기보다는, 국어의 음소체계에 나타나는 조건들을 밝힌 것이다. 자질결합조건에서는 자질 간의 포함 관계 혹은 상충 관계에 있는 결합 양상들을 밝혔는데, 자질 간의 포함 관계란 하나의 특성이 다른 특성을 불러오는 관계이고, 자질 간의 상충 관계란 하나의 특성이 다른 특성을 배제하는 관계이다. 음성실현조건에서는 주로 자음의 길이와 관련된 조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사학위 논문

1910년대 新文館의 문학 기획과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

이 경 현

2013년 2월 현대문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조남현

본 논문은 1910년대 근대문학의 형성과정과 신문관(新文館)의 문학 기획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한 것이다. 『무정(無情)』 초판의 발행소이자 3·1운동 관련 주요 인사들의 집결지였던 신문관은 이름 그대로 “신문(新文)”을 만들어 낸 곳으로 평가받는다. 식민지 시기 민족운동과 문학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진 장소라는 점에서, 신문관이 생산한 문학에 대한 평가는 근대문학을 바라보는 시각은 물론 정치와 문학의 역학관계를 짚어보는 일과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1910년대 신문관 활동의 궤적은 그 참여인사의 다양한 면면에서도 짐작 할 수 있듯 표면화된 것만으로 실체화하기 어렵다. 각각의 참여인사는 신문 관의 안팎에서 또 다른 입장들과 서로 대립하고 협력한다. 신문관의 문학 생산은 넓게 보아 신문관 출판 활동의 일부이자 1910년대 근대문학의 일부로서 여타 출판물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졌을 터인데, 그간 이러한 관련성 및 다양한 관계의 망 자체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 결과, 기존의 근대 문학 연구에서는 이들 사이의 관계를 검토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신문관의 문학 기획을 살피기 위해서는 신문관 뿐 아니라 이들이 몸을 담그고 있었던 1910년대 한국 근대문학 형성의 장(場) 전체를 고려해야만 한다. 이에 논문의 II장에서는 먼저 근대문학 형성의 문화적 배경으로서 근대 학제와 민간의 출판활동, 대중매체의 전개를 개괄적으로

살피고, 그 안에서 문학이 차지하는 위치를 고찰하였다.

1910년대에 “문학”은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채 동요하는 중이었다. 학교 교육과 민간출판, 그리고 신문·잡지와 같은 대중매체 등 여러 분야에서 “문학”이 부각되고 있었다. 유동하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다양한 제도적인 논의와 구상이 제출되었고, 문학 역시 각 방면의 전체적인 논의와 연계되어 자신의 위치를 조정해나갔다. 신문관의 문학과 여타 출판물은 이러한 복합적이고 유동적인 상황 속에서 생산된 것이다.

논문의 III장에서는 신문관의 서적 목록에 대한 문헌학적 검토를 하고, 그것을 한국 근대문학을 형성한 세 가지 축에 견주어 보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신문관의 출판 및 문학 기획의 성격이 이전 세대의 지식·문화의 주체들과 어떠한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 것인지를 논의하였다. 그 결과, 신문관의 출판 기획은 관(官)과 민(民)이라는 양방향을 축으로 삼아, 무수한 목소리가 잠재된 조선의 지적(知的) 공간을 통합하고 있음을 밝혔다.

다른 이들보다 반걸음 늦은 행보와 문(文)의 종합, 그리고 문학·매체의 활용 등, 신문관의 출판 및 문학 활동에서 드러나는 독특한 태도는 신문관의 독자적인 태도가 아니다. 신문관에서는 전대의 전통지향적인 문화 생산자들의 태도를 계승 및 변용하여 자신들의 출판 및 문학 기획의 동력으로 삼았다.

관(官)을 축으로 삼아 활동할 때에는 휘문관이나 장지연 등 관학의 출판물을 통합하는 기존 문인들과 동일한 태도를 공유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민(民)을 축으로 삼아 활동할 때에는 경판 방각본을 취합하여 민간의 출판을 통합하려 한 신구서림과 동일한 태도를 취하였다. 동시에 신문관에서는 그들 내에서 기존에 형성되었던 문학의 위상과 경합하면서, 종래의 문학과는 차별되는 문학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논문의 IV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조건에 대응되는 신문관의 구체적인 문학 실천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신문관의 학술서 및 초기 창가·우화·격언서류의 발간은 근대 학제에 근간한 기획이며, 기존의 관학에 포함되지 않은 소설을 비롯한 소화·시가·실기 등에 해당하는 문학 기획은 경판 방각본의 맥을 잇는 민간의 서적 유통을 고려한 결과임을 밝혔

다. 나아가 이러한 문학 실천이 교과서나 『매일신보』 등 권력층의 문자를 다시 쓰는 효과를 가져왔음을 논했다.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 그러나 학술과 문학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유로웠던 시대에 오로지 허용된 문자로만 말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정치성을 획득하는가. 신문관의 “비정치적” 문학 활동이 “정치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면, 이때에 정치성을 단련시키는 것은 이러한 상호작용과 자기 부정의 과정 속에서일 것이다.

박사학위 논문

한국근대소설에 나타난 탈가(脫家)의
상상력과 여성 표상

이형진

2013년 2월 현대문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박성창

본 논문은 한국근대소설에서 집을 나오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주로 여성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시기 문학에서 탈가(脫家)의 상상력이 왜 여성과 접속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개화기에서 1930년대에 이르는 식민지 시기 문학 전반에 걸쳐 여성의 탈가가 서사적으로 구현되는 방식과, 서사 내에서 여성의 표상되는 형식이 시대에 따라 변화해 가는 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식민지 시기 한국근대문학에서 탈가의 상상력이 여성을 통해 구현된다 는 것이 지니는 의미를 규명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한다.

서시문학의 오랜 주제인 ‘집 나오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한국근대소설에서는 주로 남성이 아닌 여성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파격이 아닐 수 없다. 부부유별의 근간을 “男子居外, 女子居內, 男不入, 女不出”에서 찾았던 조선의 오랜 유교적 전통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여성은 주인공으로 하는 이러한 탈가의 서사가 비단 여성 작가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 앞서 남성 작가들에게서 더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근대소설, 그 중에서도 남성 작가들의 작품들에서 탈가의 상상력이 여성을 매개로 하여 구현되는 이유와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 이 시기 문학의 한 특수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 시기 많은 남성 작가들이 그들의 작품을 통해 여성의 탈가라는 모티프를 반복적으로 서사화하고 있는 것은 이 모티프가 당시의 시대적인 상상력과 공명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식민지 시기 상상력의 근간이 되는 가장 원초적인 체험은 무엇보다도 일제에 의한 국가 상실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성의 탈가는, 그것이 남성 작가들의 시선에 의해 그려지는 것일 때, 이러한 상실의 경험에 대한 서사적인 반복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 남성 작가들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있는 여성의 탈가는 모티프는 시대적 상실감에 대한 문학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의 탈가가 식민지 시기 문학 전반에 걸쳐 동일한 방식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여성의 탈가가 서사화되는 방식은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차이는 상실의 경험에 대응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상실의 경험에 대한 문학적 반응은 상실한 것을 다른 무언가로 대체하려는 시도로 나타날 수도 있고, 혹은 자기 자신과 외부 세계에 대한 폭력을 통해 상실의 경험을 반복하고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또는 그러한 경험으로부터 초월 혹은 탈출하려는 욕망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에 따라 문학 속에서 여성은 집을 나갔다가 다시 무사히 귀환하게 되기도 하고, 혹은 집을 나간 후 타락하거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도 하며, 또는 오히려 다른 인물을 죽음으로 이끄는 유혹자로 나타나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식민지 시기의 시대적 상상력이 이처럼 상실의 경험에만 고착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상실감이 강렬할수록 부조리한 현실로부터의 탈출 의지 또한 강렬해질 수밖에 없으며, 상실감에 대한 표현 욕구와 함께 탈출 욕망에 대한 표현 욕구 또한 강해지게 된다. 남성 작가들이 그려내는 여성의 탈가는 모티프가 식민지 시기 문학을 분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유는 이 모티프가 상실의 경험과 탈출에의 의지라는 시대적 상상력의 양면 모두와 관계되기 때문이다. 남성 작가의 입장에서 여성 인물이 ‘집을 나가는 것’은 분명 상실의 경험이지만, 여성 인물의 입장에서 본다면 ‘집을 나오는 것’은 분명 탈출의 경험이기 때문이다. 남성 작가와 여성 표상이라는 구도가 지니

는 복합적인 성격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시기 남성 작가들의 작품들을 통해 반복적으로 서사화되고 있는 여성의 탈가는 식민지인의 이러한 상실의 감각과 탈출에의 욕망 모두를 복합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남성 작가는 여성을 표상의 대상으로 삼아 식민지인으로서의 상실감과 탈출 욕망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남성 작가와 그 대상으로서의 여성 표상이라는 구도는 그 이면에 더 복잡한 드라마를 내포하고 있다. 남성 작가는 작가의 의도와 필요에 따라 여성 인물을 문학 속으로 소환하지만, 여성 표상이 이러한 남성 작가의 지배하에 머물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 표상은 기표에서 이미지로 그리고 다시 은유에서 알레고리로 그 표상의 형식이 바뀌어나가는 과정에서, 남성 작가의 의도를 초과하여 자신만의 목소리와 육체를 얻고, 궁극적으로는 욕망하는 타자로서 출현하게 된다. 남성 작가 또한 여성을 표상해내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언어적 주체, 또는 시각적 주체, 더 나아가 행위의 주체로 구성해낼 수 있게 된다. 본고의 각 장에서는 이렇듯 탈가의 서사가 각 시대별로 구현되는 방식과, 그 속에서 여성이 얻게 되는 표상의 내용과 형식을 통해 남성 작가와 여성 표상이 이렇듯 서로를 구성해나가는 방식을 살펴보고 있다.

개화기 신소설의 특징은 집을 나간 여성이 언제나 무사히 집으로 귀환한다는 것이다. 신소설 속에서 여성은 자주 죽음의 위기에 처하지만 언제나 그 위기에서 무사히 벗어나게 된다. 이러한 신소설 서사의 기본 구조를 ‘탈가와 귀환’의 서사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남성 작가의 의도에 따라 집 밖으로 내몰렸다가, 다시 집 안으로 불러들여지는 여성 인물이 있다. 여성 인물은 따라서 신소설에서 언제나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편지, 혹은 상징계의 순환 속에 들어간 기표로서 표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의 2장에서는 신소설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혈의 누』와 그 저자인 이인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여성이 탈가와 귀환의 서사 속에서 기표로서 표상되고 있는 이유와 의미를 살펴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신소설의 서사가 ‘춘추복수론’과 같은 ‘수구파’들의 언설에 대한 ‘개화파’ 지식인들의 대항 담론으로써 구성된 것이며, 이러한 담론적 대결을 통해 신소설 작

가들이 언어적 주체로서 출현하게 됨을 밝히고 있다.

1920년대에 오면 여성이 문학 속에서 표상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하게 된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사회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한 여성은, 문학 속에서도 기표가 아닌 이미지로서 표상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유교적인 도덕률에서 벗어나 집 밖으로 나오게 된 1920년대의 이러한 여성은 봉건적인 도덕으로부터의 탈피를 체현하고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남성에게는 자신의 이상화된 거울-이미지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렇듯 여성이 이미지로서 인식되고 표상된다는 것은 문학 속에서 이들 여성들이 맞이하게 되는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집을 나온 여성들이 언제나 무사히 집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신소설의 서사에서와는 달리, 1920년대 소설에서 집을 나온 여성들은 그 대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거울-이미지로서의 여성은 매혹의 대상인 동시에 공포의 대상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매혹의 대상인 이들 여성들은 본격적인 연애서사의 첫 주인공들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그와 동시에 공포의 대상으로서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본고의 3장에서 이광수와 김동인 등의 작가들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여성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러한 극단적인 결말은 1920년대 초반의 작품들에 많이 나타나다가 192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점차 줄어들게 된다. 이 시기 문학에서 여성의 점차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운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은 여성이라는 불가사의한 이미지에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되면서 그 이미지가 불러일으키던 공포가 희석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시기 집을 나온 여성들이 얻게 된 이름은 바로 다름 아닌 ‘노라’였다. 1921년 입센의 『인형의 집』이 『매일신보』 지면을 통해 조선에 본격적으로 소개된 이후, 노라는 집 나온 여성의 가장 대표적인 표상이 된다. 그리고 집을 나온 여성이라는 불가사의한 이미지는 노라로 은유화 됨으로써 그 의미가 고정될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닐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집을 나온 여성은 이제 ‘타락한 노라’일 뿐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시기 집을 나온 여성들은 조선의 노라라는 은유 덕분에 죽음이라는 가혹한 운명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게 되지만, 여전히 타락이라

는 사회적 죽음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타락과 몰락 속에서 여성 표상은 자신의 목소리와 육체를 얻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염상섭과 채만식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4장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집을 나온 여성들이 죽음이나 타락이라는 고정된 운명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은 1930년대 이후의 소설들에 와서이다. 더 나아가 이상과 같은 작가는 여성을 죽음에 희생되는 모습으로 그리기보다는 죽음으로부터 초월해 있으며, 오히려 남성 주인공들을 죽음으로 유혹하는 팜므 파탈적인 모습으로 그려낸다. 여성은 ‘나’에 의해 완벽하게 지배되거나 통제될 수 없는 실제적 타자로서 나타나며, 따라서 ‘알레고리’로서 표상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은 여성을 자유롭게 외출하는 존재로, 그리고 남성은 방 안에 유폐되어 있는 존재로 그려내며, 이렇듯 집 안에 갇혀 있는 남성은 여성의 외출을 모방하는 것을 통해 집 밖으로의 탈출을 감행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그려진다. 즉 알레고리로서의 여성은 외부에 대한 사유를 촉발시키고, 서사 내에 외부성을 도입시킴으로서 유폐된 시공간으로부터의 탈출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본문의 5장에서는 이상의 작품 세계를 중심으로 이러한 ‘유폐와 탈출’의 서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여성의 탈거라는 전복적인 상상력은 결국 식민지라는 특수한 시대적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남성 작가들은 여성 표상을 빌어 시대적 상실감에 대한 표현을 얻을 수 있게 되며, 또한 남성 인물들에게는 봉쇄되어버린 탈출을 서사화할 수 있게 된다. 여성 표상 또한 탈거의 상상력과 접속하게 되면서, 표상의 대상이라는 수동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작가의 의도를 초과하여 표상의 힘을 보여줄 수 있게 된다. 이렇듯 탈거의 상상력을 통해 남성 작가와 여성 표상이 만들어내게 되는 주체와 타자의 드라마를 통해 식민지 시기 한국근대문학은 한 독특한 영역을 개척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박사학위 논문

1930년대 한국 이미지즘 시의 세계 인식과
은유화 연구:

정지용과 김기림을 중심으로

나민애

2013년 2월 현대문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김유중

본 논문의 목적은 정지용과 김기림의 작품세계를 통해 1930년대 ‘조선적 이미지즘’의 형성과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본고는 ‘조선적 이미지즘’에 대한 규명을 통해 한국 문학사에서 이미지즘의 복권이 가능하리라고 보았다. 그런데 우리 시사에서 이미지즘의 제자리를 되찾는다는 것은 비단 이미지즘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바쳐져 있지 않다. 종래에 알려져 있는 수입 사조로서의 ‘이미지즘’에 ‘조선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그 구체적인 형성과 의미를 밝히는 일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우선, 하나는 외국 사조의 유입은 우리 시의 변화와 발전을 가져온 여러 고려 대상의 하나일 뿐 결론이 될 수 없으며 보다 중요한 것은 주체적인 토착화의 규명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조선적 이미지즘에 대한 새로운 조명은 근대 문인과 현대시 형성의 윤곽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조선적 이미지즘이 근대 문인의 감각이 이미지라는 감각의 총체를 거쳐 작품 전체의 구성 원리와 지향성을 구현해 가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았다.

이상의 목적을 지니고 본고에서는 이미지즘 연구에 ‘인식론적인 은유’의 방법론을 도입했다. 구체적인 방법론의 설명은 리쾨르의 은유에 관한 미번 역본 연구서를 기본 텍스트로 삼고 있다. 은유론은 오랜 역사를 거쳐 발달

해 왔는데 그 중 리쾨르는 가장 최근의 주목할 만한 은유 연구자이자 또한 은유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파악한 논자이다. 그의 논의에 바탕을 두고 본고는 이미지가 단순히 회화성, 가시성의 영역에 속한 시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 당대적으로 공유되고 역사적으로 변천된 인식론적인 장을 상징화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시인 개인으로서는 그 인식론적인 장을 바탕으로 상상적인 장을 펼쳐나갈 때 은유를 통해 사유의 확장과 변모를 꾀한다고 보았다.

이 특징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시인으로 본고에서는 정지용과 김기림을 선정하였다. 본고에서는 정지용과 김기림이 조선적 이미지즘의 대표 시인이자, 공통적·대조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양 시인의 대표성을 고찰함으로 인해 조선적 이미지즘의 틀을 유형화할 수 있다고 파악한다. 이들 시인의 특징을 포착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변화된 현실의 ‘인식론적인 장(場)’, 문학 내적인 ‘상상세계의 장(場)’, 그리고 현실과 상상을 연결하는 작품 내적 원리인 ‘은유 지향성의 장(場)’을 구분하여 그 실체와 관계를 고찰하였다. 본 논문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본론 II장 1절은 서구 이미지즘 이론에 대한 고찰, 조선 문단으로의 이입 상황 검토, 정지용과 김기림의 은유론 및 이미지관을 서술하고 있다. 이어 2절에서는 문단 상황 및 논쟁 등을 통해, 1930년대 정지용과 김기림이 이미지즘에 주목한 이유가 당대 문단 내 ‘조선시’의 요청과 연결되어 있음을 논구한다. 그리고 3절에서는 ‘조선시’의 지향이 은유를 선택하는 필연적 이유로서, 당대 일제 식민지학(殖民地學)의 심상지리로 보급되던 조선에 대한 은유에 주목한다.

III장에서는 정지용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고찰한다. 지용의 초기시편에서는 ‘개인의 혼’이 감각적 세계 내에서 어떻게 위치하는가를 모색했고, 후기 시편에서는 ‘공동체의 혼’이 심상지리 내에서 어떻게 발견될 수 있는가를 탐색했다. 이어 IV장의 김기림의 경우에는 김기림의 은유 지향적 공간성에 주목한다. 김기림은 현실 공간을 역전적으로 활용하여 전복적인 은유의 방식을 드러낸 바 있다. 신문, 지도, 박람회, 근대 사진, 조감도 등 현실의 수평적 판이 그의 인식의 기초를 차지한다면, 김기림의 시창작은 이 수평적

판을 뒤집으면서 시작된다. 이 두 시인의 이미지 분석은 작품의 공간 구성에 대한 파악에 머무르지 않고 그들이 당대 사회를 무엇으로 보고 있으며 어떻게 보고자 하는지에 대한 인식론적이며 상상적인 장을 추론할 수 있게 한다.

결론적으로 본고에서 주목한 바, ‘조선시’의 문제에 기여한 조선적 이미지즘의 주체적인 발전 양상은 현실의 변화와 시학적 필요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실 인식의 식민지적 은유와 이미지의 보급에 대응하여 문학적이고 주체적인 은유와 이미지의 형성을 추구했다는 것이 조선적 이미지즘의 의의이다. 본고에서는 정지용과 김기림에게서 확인한 조선적이며 문학적인 심상공간의 확보는 이미지즘의 조선적인 특질을 드러낸다고 보았다. 이것은 공동체의 정신적 숨터를 확보하고 형성하는 일, 부정적 현실 공간을 낙토의 공간으로 은유하는 의미의 지향성임을 밝히면서 논의를 정리하였다.

박사학위 논문

1920년대 소설의 공동체 의식 연구

안 용 희

2013년 2월 현대문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조남현

본 논문에서는 1920년대 소설에서 근대 세계의 보편적 원리와 식민지 조선의 특수한 현실을 매개하는 수단으로서 공동체 의식이 지니는 의미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민족(nation)과 계급을 이 시기 공동체 의식이 구현되는 실제적 토대로 바라보고, 각 공동체의 하위 유형으로서 가족과 노동자 조직, 농촌이 형상화되는 구체적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 세 유형 중 가족은 식민지에서 민족의 표상이라는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가족의 구성 방식을 통해 당대 사회 이념의 의미를 물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노동자 조직의 문제는 노동가치라는 근대 사회의 이념과 관련된 문제인 동시에, 식민지 정책과 관련하여 민족의 자립이라는 문제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 또한, 20년대 중반 이후 주목받은 농촌 공동체의 전통은 사회적 갈등의 심화로 인한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열망의 매개로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공동체는 국가의 제도, 사회의 이념에 대응하는 인간 집단으로 일정한 지리적 영역, 구성원 사이의 상호작용, 그리고 가치를 통한 연대라는 내재적 요소들의 변화를 통해 고유한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 그것은 각자의 삶을 영위하는 구성원들의 집합이기에, 외부적 이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의 관계가 변모하는 데서 변화를 겪는다. 이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은 끊임없이 공동체의 가치를 되묻고 공동체의 이념이 절대화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1920년대의 맥락에서 공동체 의식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 개념과의 비교, 자유 개념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사회의 관계는 자유가 어떠한 방식으로 보장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본고에서는 기존의 공동체 개념을 탈피하기 위해 국가나 그와 대응 관계를 이루는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재할 수 없었던 식민지 개인의 성격을 강조하였다. 개인의 자유는 ‘나’의 자유와 함께 타자의 자유를 옹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그 자유는 공동체 속에서 가치를 가짐으로써 존중받을 수 있다. 특히 정치적으로 억압된 현실에서 자유는 제국과 식민지의 구조를 전제하면서도 인간 본연의 존재론적 문제를 제기하였다.

II장에서는 20년대 공동체 의식이 성장하는 배경으로 사회, 민족, 계급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개화기에 국가와 동일시되기도 했던 사회 개념은 한일합방을 전후하여 의미 변화를 겪었으며, 1910년대 중반 무렵부터 식민지 국가 체제와의 효율적 조화를 꾀하는 사회 개념이 기획되었다. 조선의 지식인들은 사회 개념을 일정 부분 공유하면서도 민족과 계급을 토대로 새로운 공동체 의식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민족 공동체의 흐름에서는 문화적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한 민족 개조론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계급 공동체를 지향하는 흐름의 경우에는 당 조직의 문제와 관련하여 진정한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당대의 문제의식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천도교가 민족 공동체와 계급 공동체에 대응하는 양상에 주목함으로써 민족과 계급을 중심으로 한 당대의 공동체 의식이 서구적 이념 체계와 변별되는 지점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III장과 IV장에서는 민족과 계급 등을 토대로 공동체에 대한 지향을 형상화한 소설들을 살펴보았는데, III장에서는 가족을 중심으로 민족 공동체에 대한 지식인들의 사유가 갖는 의미를 따져보았다. 이를 통해 이 시기 유학생 출신의 청년 세대가 개인의 자유라는 근대적 가치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가족의 성격이 문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혈연을 통한 상하관계에서 벗어나 기능의 분화에 따라 개인의 위상이 평등하게 결정되기를 바랐다. 공동체 구성원의 균질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해소되기 어려운 물질문명의 균형에 주목

하기보다, 정신의 차원에서 그 평등성을 회복할 수 있는 민족 내부의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었다.

민족 공동체의 정신성에 대한 강조는 민족 구성원들의 동질성을 부각하는 한편으로, 이질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그러한 주체의 욕망을 억압하고자 했다. 이러한 청년 세대의 구상은 여성의 위치로 인해 그 모순성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식민지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에 기초한 가족 공동체가 사회의 이념에 종속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20년대의 민족 공동체는 가족을 매개로 역사와 접목함으로써 진화론적 문명관의 사유 방식을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인 민족상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추상적인 것으로 비판받았던 민족문화의 정신적 측면에 대한 강조가 좌파 민족주의의 전통 인식을 이끌어내는 등 나름의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 역시 밝힐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민족 공동체의 문제의식이 문학사에서는 가족사 소설, 역사소설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됨을 보여준 것도 본 연구의 주요한 성과이다.

IV장에서는 농민과 노동자로 구성된 계급 공동체를 중심으로 당대의 물질적 자유에 대한 추구를 살펴보았다. 빈곤이 본격적으로 사회 문제가 된 20년대 소설에서는 이에 대한 인식이 사회 구조적 차원으로 심화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식민지의 틀 안에서 피식민지인들의 자유란 경제활동의 자유에 불과했지만, 식민지 체제의 왜곡 등으로 인해 그것마저 불완전한 것이었다. 식민지 권력에 의해 근대화의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었던 노동이 현실적으로는 사회의 이념적 목소리와는 다름이 드러난 것이었다. 극도의 궁핍으로 인한 박탈감은 공동체의 가치에 토대한 윤리 의식마저 위태롭게 했다. 이러한 점에서 계급의식은 최소한의 윤리 감각을 회복하기 위한 흐름에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사회주의 수용과 함께 계급의식이라는 일정한 이념을 가진 공동체가 등장하는 과정을 당대 소설을 통해 분석하였다.

계급문학운동은 원초적 차원에서 감각의 공유를 그 기원으로 하면서도, 코민테른의 지침 및 조직운동의 이념이 강조되면서 계급 공동체의 초기 문제의식은 본격적 의미 부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볼 수 있었다. 이로 인한 현실적 육체성의 배제는 개인 감성의 신장을 통해 새로운 자유를

추구할 수 있었던 토대를 잃는 계기가 된다는 점 역시 파악할 수 있었다.

조명희, 이기영 등의 소설가들이 이념적으로 경직된 공동체 의식을 극복하기 위해 주목한 것이 농촌 공동체 의식의 복원이었다. 그들은 소설 속에서 농촌 공동체를 중심으로 공동체의 전통을 새로운 삶의 현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되살릴지를 고민했다. 그 과정에서 훈육된 감정을 탈피하기 위해 재발견해야 할 감각의 재현에 주목했다는 의미를 획득할 수 있었다. 이는 서구 소설로부터 기원한 리얼리즘을 감각의 재발견을 통해 보다 수준 높은 인식으로 이끄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이 1930년대로 접어들면서 농촌 공동체에 주목한 소설들의 창작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 문학사적 의미 또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20년대 소설의 공동체 의식에서는 자유가 중요한 문제 지점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공동체적 자유로의 지향을 통해 타자의 타자성 자체가 공동체의 계기이자 개인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20년대 소설의 공동체 의식에 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민족주의를 토대로 한 기존 문학 연구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민족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20년대의 공동체 지향성은 전혀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 민족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가능성을 지니고 분화될 수 있다면, 그 안에 내재된 공동체의 유형들 역시 끊임없이 이념과 제도에 맞서 인간 본연의 가치를 옹호하는 문학적 토대로 존재할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본고의 논의는 근대소설 장르의 보편적 발전 양상에 대해서도 문제제기의 의미를 가진다. 1920년대 소설의 서사를 근대 사회가 정착된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회 이념에 대응하며 이를 쇄신하고자 하는 공동체의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박사학위 논문

경성제대 작가의 민족지 구성방법 연구

백지혜

2013년 2월 현대문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조남현

본 논문은 식민지 작가가 문학과 예술의 실천주체로서, 대학과 연결되는 지점을 확인하기 위해, 경성제대의 위상과 작가의 관계를 구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성제대의 실체에 다가가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경성제대의 구성원, 즉 경성제대 조선인 학생들의 내면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고, 아울러 경성제대의 문인과 초창기 한국 문학사와 관련된 경성제대 작가의 위상을 점검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요 과제이다.

논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경성제대의 작가는 유진오와 이효석이다. 이들은 습작기가 무색할 정도로 대학 재학중 ‘문단’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공통점이 있다. 논문에서는 이들의 소설이 근대의 이상적 관점과 전근대의 논리, 동양과 서양의 학문 사이에서 고민하는 주체로 소설의 미학적 자질을 획득하고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경성제대 시절 발표한 창작 소설, 번역소설, 시, 학술논문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자료에서 조선의 근대문화에 대한 나르시시즘적인 이효석의 시선, 조선의 ‘문화’와 타민족의 문화를 견주어 보는 유진오의 자의식을 검출하고, 民族誌(ethnography)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민족지는 정보의 관찰(observation)과 보고(reporting)를 위한 계량적이고 통계적인 시선을 필요로 한다. 민족지의 초창기 이론은 레비스트로스의 『슬픈열대』가 증명하듯, 문화가 낮은 ‘타자’—미개인, 부족민, 비서양인, 무문자의 사람들—를 발견함으로써 근대 초기 제국주의의 팽창과 연결되기도

한다. 인류학에서 발생한 민족지의 개념을 레이초우는 문학비평에 도입하여, 서구와 비서구의 이분화된 것대가 유효하지 않음을 증명하고, 오히려 제3세계에서도 유사한 원시화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주목하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포착된 타자를 원시화하고 스스로 근대화의 테크놀러지에 매혹된 근대 지식인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계급을 ‘타자화’하는 현상은 자기 자신을 ‘근대화’하는데 매혹된 지식인의 특징이기도 하다.

경성제대의 작가, 유진오와 이효석은 일본에 동화된 지식인이 아니라, 조선문학에서는 꽤 높은 수준의 영어를 구사함으로써 ‘세계문학’을 ‘원문’의 수준으로 바로 읽고 독해하고 있다는 점, 세계문학과 일본문학, 그리고 조선문학이라는 세 가지 경계 속에서 자신을 지우며 소설을 창작하면서 이들을 자신을 피식민지인이 아니라 ‘제3세계’ 지식인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족지의 특징이 발견된다. 즉 이들은 ‘조선’이라는 타자를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근대화’하는데 매혹되어 있었다.

논문의 2장에서는 유진오와 이효석의 문학적 활동을 검증하기 위한 예비적 단계로 경성제대 문인이 탄생하게 된 내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2.1은 경성제대의 조선인 학생이 주체가 된 『신흥』, 『문우』를 살펴본다. 『신흥』은 1920년대 세계사적 지식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조선의 현실을 학술적으로 고민함으로써 경성제대 지식인의 내면을 포괄적으로 직조하였다. 『문우』는 경성제대 문인을 배출하는 예비적인 문예지의 성격을 갖추고 있었다. 논문에서는 『문우』에 실린 소설이 대부분 편지체 소설임을 주목하고, 이들의 문학적 동질성을 규정짓는 소설의 모티프가 대부분 가난, 가족제도, 유학의 좌절에 치중되어 있음을 밝혔다.

2.2에서는 경성제대 문인 집단의 특수성을 설명하였다. 경성제대 문인의 전공, 성향에 따라 문단에 투신하는 길이 달라졌다. 경성제대 문인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뉠 수 있다. 학계에 투신하고 일제말의 문화민족주의를 견인한 동양어문 전공자와 서구라는 보편의 기호를 습득하면서 서구 지식인에 경사된 모습을 보이는 서양어(철학) 전공자였다. 특히 후자의 경우, 문단에 진출하여 작가와 평론가로서 입지를 굳혔다. 유진오와 이효석 역시 작가로서의 길을 걷기 이전에, 서구 문학을 번역하면서 자신의 문학적 발판을

다지고 있었다.

논문의 3장은 유진오와 이효석이 경성제대 시절 등단 이후 문학적 완숙기에 이르기까지 불과 10년이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문명화된 타자의 시선으로 조선을 구성하는 민족지의 전개양상에 대해 알아보았다.

유진오는 관찰자의 시선으로 조선의 낙후된 후진성을 발견하고, 조선의 타자화하는 일본인의 시선에 매혹되기도 한다.『화상보』의 장시영이 식민지를 ‘조사’, ‘관찰’하는 식물학자로 설정되거나 김경아가 서양에서 성악을 전공한 점은 바로 ‘문화비판자’로서 조선의 낙후성을 비판할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것이다.

유진오는 점차 후반기로 갈수록 개화기의 재현과 경성의 ‘복춘’을 배경으로 쓴 소설을 썼다. 특히 외숙의 죽음과 연결되어 출간되지 못했던, 미발표 육필 원고 「민요」는 일제 말 유진오의 무의식을 독해할 의미있는 작품이다. 기원과 시원을 발명하고자 하는 욕망은 정통 양반에 대한 기억을 소환하여 유진오만의 민족지를 형상화하기에 이른다.

경성제대 재학 중 발표된 이효석의 번역 소설은 이효석의 소설적 모티프를 제공하는 원천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타국의 문화와 ‘조선’의 문화를 견주어 볼 무의식을 구성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경성제대 시절의 이효석은 이미 어떠한 단일 문화도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보편적인 인류학적 시선의 정립하고 있었다. 이효석 소설은 여성을 시각적으로 전시하고 끊임없이 페티시화한다. 이러한 여성의 페티시즘은 자연의 원시성과 함께 어울려졌다. 그는 풀이름이나 나무이름을 열거하는 방식을 통해, 조선의 자연을 이국적으로 표상하였다. 자연을 관상화하며 주로 풍경으로서 ‘관찰’되는 자연을 전시했다. 이러한 감각적 표현의 동원방식은 이효석 소설의 공간을 ‘비실재’의 공간으로 독해하는 기반이 되었다.

따라서 이효석의 후반기 소설은 도록, 박물관, 고검, 관광엽서, 혹은 미각으로 재현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에게 조선은 ‘여성’처럼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한복의 모습으로, 한복을 옷을 입은 일본인 여자로, 국악을 듣는 ‘여성’으로 재현된다. 이효석의 무의식에서는 이것이 실제 ‘조선적인’ 것을 표상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이 ‘조선적인 것’을 믿게

하는 과정 속에 놓여 있었다. 그는 소설을 읽는 독자 모두에게 ‘낯선 조선’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미학적 민족지의 모습을 현현해내었다. 때문에 그는 경성을 탈주의 공간으로 받아들이고 ‘古都’를 주목한다.

논문의 4장은 동경문단과의 교섭과정으로서의 ‘조선’민족지를 설명하였다. 4.1에서 설명하고 있듯, 1930년대 말 김사량은 조선문단과 동경문단의 매개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동경제대를 졸업할 무렵 김사량은 경성제대 출신에게 ‘번역회’를 조직할 것을 촉구한다. 조선문학을 내지어로 ‘번역’하여, 조선문학의 자부심을 알리자는 것, 이는 곧 번역과 일본어 소설창작을 함께 할 수 있는 이효석과 유진오의 작가적 위치가 독특해지는 지점이었다. 또한 논문에서는 『모던일본』이 제창한 〈조선예술상〉을 견주어봄으로써, 일본의 문예지에서 ‘조선봉’이 일어나는 현상, 즉 조선을 심미화하는 미적현상이 조선문단에서도 강화되는 현상을 설명하고, 일제말 ‘조선’ 민족지가 부각되는 지점을 살펴보았다.

논문의 4.2는 유진오와 이효석이 일본의 문학잡지, 『문예』에 ‘조선문학특집호’로 실린 소설을 살펴보았다. 「여름」과 「은은한 빛」은 조선을 심미화된 대상으로 그려낸 자기 민족지의 한계에서 벗어나, 조선적 소재를 통해 무능력한 조선의 역사의식에 경종을 울리는 작품이다. 이는 경성제대 시절부터 다져온 교양의 감각, 세계주의적 감각이 내재된 작가적 역량이 폭발되는 지점으로 자기 민족지의 치명적인 오류, 즉 조선의 심미화를 통해 동경문단에 조선문학을 알리는 모순의 과정으로부터 탈주하는 계기가 되었다.

유진오와 이효석은 경성제대 시절부터 번역소설과 서구 지식에 대한 강렬한 매혹으로, 조선을 타자화하였다. 이는 경성제대의 문인이 지녔던 양면성, 즉 근대와 전근대 사이에서 머뭇거렸던 식민지 작가의 자화상과 연결된다. 경성제대의 문인의 위상과 함께 점검해볼 때, 유진오·이효석의 문학을 당시 비평계를 휩쓸었던 동양론으로 혹은 식민권력에 대한 협력인가 저항인가 하는 단선적인 기준에 의해 포착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박사학위 논문

동아시아 근대시에 나타난 산책가와 식민지 도시 인식 연구

응웬 티 히엔

2013년 2월 현대문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신범순

본 논문은 식민지 시기 한국, 베트남과 중국 근대시에 나타난 산책가와 그들의 도시인식을 비교하고자 한다. 경성과 하노이, 상하이는 구체적 형태는 다르지만 같은 아시아 지역과 동아시아 문화권에 위치한다는 점, 본토에서 중요한 역할을 지녔던 도회였다는 점, 근대화와 동시에 식민화된다는 점, 그리고 식민지 도시 건설 과정에 있어 식민권력에 의한 공간적 지배와 피식민지의 저항 등의 유사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그 공간은 도시성, 근대성, 식민성 등 복잡한 성격을 지니는 공간이 된다. 식민지 도시는 지배권력의 ‘실험실적 공간’(문명) 혹은 ‘개척된 공간’(경제)이자 ‘동화와 동일시의 과리’(문화), 근대 권력의 ‘공간적 구현’이자 ‘지배와 저항의 무대’(정치)다. 식민지 도시공간의 이러한 특징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바로 거리(距離)다. 식민지 도시 산책가들은 거리에서 식민지 도시의 다양한 풍경들을 체험하고 사유하고, 다시 그것을 글로 재현한다.

19세기에 들어와서 중국, 한국, 베트남을 비롯한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제국주의에게 정복해야 하는 마지막 ‘미지의 땅’이 되었다. 내부적으로는 봉건사회가 붕괴하며 근대화의 요구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 와중에 외부의 압력으로 중국은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서구 제국들에게 상하이 조계지를 넘겨줘야 하였다. 베트남 봉건왕조는 프랑스의 보호권을 인정하면서 베트남 남기(코친차이나 Cochinchina)와 북기(통킹 Tonkin)는 프랑스의 식민

지가 되었다. 한국은 유일한 동양 제국인 일본에게 합병되었다. 이렇게 각각 해당 나라의 중요한 도시로 기능했던 상하이, 하노이, 서울은 식민지화되면서 동시에 근대화되었다. 그러나 이 도시들은 상황에 따라 그 위상은 달랐다. 상하이 '조계지'는 서구 제국들에 의해 건설된 일종 중국 속의 서구식 도시, 즉 중국과 격리되지만 분리시킬 수는 없는 반봉건 반제국의 도시였다. 중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통킹의 중심 도시인 하노이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 식민지의 '수부'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조선이 일본에 합병된 이후 조선의 심장인 서울은 경성부의 '경성'이라고 불리는 지방 식민지 도시로 격하되었다. 이러한 명칭들은 단순히 지리적 행정적 의미를 넘어 제국과 피식민지간의 무수한 간극을 나타낸다.

이처럼 한국, 베트남, 중국 세 나라의 근대문학은 '도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식민지 도시는 제국이 현지를 지배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착취하고자 계획하고 건설한 도시다. 제국은 지배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식민지의 사회, 경제, 문화를 개선시킨다는 명목 하에 '조작한' 정책들을 내세운다. 제국의 정치적·경제적 의도와는 별개로, 이들의 지배 하에서 식민지 도시는 근대적 면모를 갖췄고 결과적으로 식민지 도시 경성, 하노이와 상하이는 피식민지인들에게 새로운 공간체험을 제공해 주었다. 그들은 거리 산보자로서 도시에 등장하였다. 그러나 식민지 도시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산보하는 '산책가'들은 제국 도시의 산책가와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그들은 백화점, 카페, 아편, 매춘 등의 '조작'된 도시 풍경을 넘어 제국이 '거짓'으로 내세운 식민지의 근대성을 훼뚫어본다. 그들의 시선은 제국들에 의해 유입되고 변성하는 물질적 욕망을 응시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왜곡시키는 제국의 의도를 간파한다. 이러한 피식민지인 산책가의 비판적 태도와 몸짓을 적극적으로 읽으려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II장에서는 비교적 관점에서 경성, 하노이, 상하이의 근대 식민지 도시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각 도시의 위상과 제국-피식민지의 인식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도시에 대한 인식의 차이뿐만 아니라 지배와 저항의 대항의식은 도시의 명칭부터 알 수 있다. '해외 지방도시'로서의 경성, '극동 프랑스령 식민지연방' 首府로서의 하노이, 반봉건 반식민지로서의 상하이 조계지는 각각

경성, 하노이, 상하이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식민지 도시들은 제국에 의해 ‘조작’되었지만 한편으로 퍼식민지 국가에 새로운 공간인 근대도시가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밟아 근대적 ‘산책의 공간’이 마련되었으며 거기서 새로운 주체인 ‘식민지 도시 산책가’가 탄생된다.

III장에서는 식민담론으로서의 거리가 가시화되는 양상, 즉 ‘보여주기’와 ‘보(이)기’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러한 특수한 공간에서 등장한 산책가를 크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한다. 식민지 도시는 근대성과 식민성이 길항하고 제국과 식민지의 관계가 집약된 공간으로, 산책의 조건들이 충족되면서 식민지의 문제들이 심화되는 공간이다. 시인들은 도시 거리 위를 산보하면서 도시의 삶을 사유하고 이를 글쓰기에 반영하였다. 경성의 산책가들은 도시의 대로(大路)부터 번화가와 백화점의 옥상정원, 미로와 같은 골목들까지 경성을 파노라마(panorama)적으로 재현하였다. 반면, 베트남 시인들은 ‘沙塵’의 거리와 빈민촌, 무너진 성벽 등 하노이의 고판적인 이미지를 조립하였다. 식민지 도시를 병든 공간이며 더 나아갈 수 없는 곳으로 파악한 것은 두 나라 시인들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한국 시인들의 작품에서 ‘죽음’으로 형상화되었다면, 베트남 시인들의 시에서는 ‘시든 꿈’으로 표현되었다. 이 공간을 극복하기 위해 시인들은 ‘탈도시적 방랑’을 감행하였다. 한편, 중국 속의 유럽식 도시인 상하이는 식민지 도시인 경성과 하노이보다 복잡하고 더 국제적인 모습이 보인다. 다양한 민족, 다양한 문화는 상하이의 만화경이다.

IV장과 V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산책가들이 식민지 도시 풍경을 문학적으로 전유하는 방식과 식민지 현실에 대응하는 방식을 분석할 것이다. IV장에서는 산책가가 발견한 식민지 도시의 풍경(경제, 사회)들을 문학적으로 어떻게 형상화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같은 식민지이지만 경성, 하노이와 상하이는 다른 형식으로 제국의 지배를 받았다. 이는 작품에서 왜곡된 소비의 문화(백화점, 아편굴), 상품으로 전락된 매춘부, 노동 인간형(쿨리, 룸펜) 등으로 나타나는 등 다른 방식으로 재현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시에 빈번하게 나타난 백화점, 아편, 룸펜, 매춘부 등의 기호를 주목하고, 시인들이 이러한 기호를 통해서 식민지 도시의 ‘빛’과 ‘어둠’을 넘어서 제국들로 인해

왜곡된 도시 삶의 양상을 어떻게 파악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병든 현실/공간에 대응하는 방식을 다루는 것이 V장의 목적이다. 식민지 지식인들은 근대와 제국을 비판하는 미학을 공유하며 예술적 공간을 형성하였는데 경성의 카페/다방, 하노이의 가주관(歌籌館)이 그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도시의 탕아”를 연기하고 자기를 파멸시키는, 병적인 저항을 한다. 그러나 그러한 병적 상태를 더 이상 치료하지 못하는 식민지 도시 공간을 벗어나고자 그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은 ‘탈도시’였다. 그러나 그것은 도시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감행하는 ‘노마드적 산책’이었다. 혼란스러운 상하이에서 살아가는 시인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삶은 비록 경성과 하노이의 시인들처럼 참혹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상하이의 정체성(海派)을 확립하기 위해서, 나아가 새로운 중국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죽음과 투쟁, 그리고 방랑 등 다양한 길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는 한국과 베트남, 중국의 근대시에 나타난 경성과 하노이, 상하이 식민지 도시와 산책가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미약하나마 이를 비교하여 아시아 식민지 시기 문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한 파리, 도쿄 등의 제국 도시와 북경, 사이공 등의 아시아 대도시에 대해 확장된 내용은 앞으로 연구의 과제로 남겨둔다. 이 연구는 베트남과 한국, 더 나아가 아시아 식민지 시기의 문학을 새롭게 읽을 수 있는 출발점으로 필자에게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연구를 더 확장시켜서 아시아 비교문학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사학위 논문

국어 시간 명사의 역사적 연구

정동경

2013년 2월 국어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이현희

본 연구는 시간 명사에 속하는 국어의 어휘들을 통시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이들이 갖고 있는 형태·의미적 특성을 살피고 나아가 역사적으로 한국어에서 시간 개념이 어떻게 언어에 반영되었고 그에 따른 시간 체계는 어떠하였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을 설명할 때에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연구는 여타 학문에서뿐만 아니라 국어학에서도 주된 논의 대상으로 다뤄져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시간을 주제로 한 국어학적 논의들은 주로 시제와 시간 부사에 치우쳐 있거나 공시적으로 현대국어나 현대국어 이전의 어느 한 시기만을 논의 대상으로 삼아 온 경향이 있어서, 시간 명사 전반을 대상으로 한 통시적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하지만, 시간 명사 전반에 걸친 연구는 시간 부사나 시제를 주제로 한 논의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한국어 시간 체계와 그 변화 양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하며, 그를 통해 한국인의 시간 개념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게다가 한글 문헌이 등장한 후기 중세국어로부터 현대국어 시기까지의 역사적 연구를 통해, 한국인들이 시간 개념을 어떻게 인식하여 그것을 언어 표현에 반영하였는지, 그러한 인식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했고 그에 따라 언어에서 나타나는 시간 체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시간을 주제로 한 국어학적 연구에서는 어찌 보면 기초적인 작업에 불과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국어학 내에

서만이 아니라 타 학문과 연계된 국어학적 연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결코 등한시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본 논문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본 연구의 논의 대상이 되는 ‘시간 명사’가 지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가리키는 시간 개념은 어떤 성격을 갖는지를 분명히 하고, 이전의 논의들에서 시간 명사로 다루어졌거나 혹은 제외되었던 단어들 중에서 본고의 논의 대상이 될 수 있거나 없는 것들을 판별해 내었다. 그를 통해 “어휘 내적인 의미가 시간을 지시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로서 명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예를 들어, 격조사(특히 부사격 조사)를 결합할 수 있고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것들만을 시간 명사의 목록에 넣었다.

3장에서는 후기 중세국어 시기로부터 현대국어 시기에까지 등장하는 여러 시간 명사들 중에서 시간을 매기기 위한 단위로서 쓰이거나, 기준시를 고려하거나 혹은 고려할 필요 없이 시간을 매기는 역할을 하는 시간 명사들을 분류함으로써 각 시기별로 보이는 시간 체계의 특징을 고찰하고 현대국어로 내려오면서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를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각 시기에 출현하는 시간 명사를 중 복합어(complex words)의 내적 구조를 형태·의미론적 관점에서 살폈다. 이를 복합어의 구성 요소가 갖고 있는 문법적 성격에 따라서 복합어를 분류하고 복합어를 형성하는 직접 구성 요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의미 관계를 살핌으로써 시간 개념이 복합어 형성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또한 현대국어로 내려오면서 어떤 변화 양상을 보였는지를 살폈다.

5장에서는 시간 명사의 의미에 초점을 두어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각 시기별로 새로이 출현하는 어휘와 사어화하는 어휘, 그리고 의미의 변화를 보이는 어휘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시기별로 새로이 등장하거나, 사어화 혹은 의미의 변화를 일으키는 어휘 각각의 개별적인 관찰을 통해 이들의 의미 변화가 시간 인식의 변화나 시간 개념의 특징을 어떤 식으로 반영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박사학위 논문

正祖時代 政治的 글쓰기 研究:

金鍾秀와 蔡濟恭을 중심으로

백승호

2013년 2월 고전문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이종록

이 논문은 正祖時代 정국을 주도하던 인물들이 정치담론을 형성하는 데 활용한 글쓰기에 관한 연구이다. 정조시대에는 君臣 간의 글쓰기를 통한 정국운영이 활발했고, 나아가 각 정파 사이의 정치담론 경쟁 또한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졌다. 문치국가인 조선에서 정국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정당성, 즉 명분과 의리를 얻는 것이 중요했다. 이 과정에서 글쓰기는 바로 그 정당성을 획득하는 주요 수단이었다. 정조는 즉위 초기에 외척으로 인해 왕권 기반이 약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 세력을 포섭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조는 국정 운영과 통치의 차원에서 이러한 상황을 조정하고 특정 정치 세력의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의 공론에 여러 정파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글쓰기를 활용했다.

정조시대에 글쓰기로써 정치담론을 생성하고 정국을 주도한 인물로 정조가 義理主人이라고 인정했던 金鍾秀와 蔡濟恭이 있다. 김종수는 同德會의 일원으로 척신을 물리치고 홍국영의 유배를 청하는 글을 올림으로써 의리주인으로 인정받았다. 채제공은 영남만인소를 배경으로 思悼世子에 대한 임오의리를 주장함으로써 의리주인으로 인정받았다.

김종수는 이미지와 상징을 구축하는 글쓰기를 통해 清流 담론을 형성하였다. 이를 통해 山人을 표방하고 隱者의 이미지를 쌓아나갔다. 그는 노론이라는 집권 세력에 속해 있었지만 영조대 후반 세력을 얻었던 외척세력과 그

에 협조하는 완론 탕평파를 비판하면서 은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였다. 시에서도 완적이나 도연명의 전고를 자주 썼다.

또한 김종수는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대명의리와 신임의리 를 굳게 지키는 집단, 즉 노론 山林處士 집단의 일원이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였다. 그는 李胤永 등 노론 청류와의 교유를 회고하는 글을 써서 그들과의 동류의식을 표하며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하는 글쓰기 전략을 취하였다.

김종수와 동류 문인들은 고아한 취향을 드러내는 글쓰기를 즐겨하였다. 그들은 서화 골동 취향을 드러내고 모임의 명칭도 ‘雅集’이라고 부르는 등 고결한 청류의 이미지를 부각하였다. 이것은 본인들의 모임이 고아한 아취 가 있는 모임이라는 것을 표방한 것이다. 김종수는 이와 같은 청류 이미지를 청류 담론으로 발전시켜 척신정치를 비판하고 사류로서 공론을 주도할 명분을 얻었다.

채제공은 글쓰기를 통해 정파를 결속하였다. 채제공은 許穆을 존숭하는 글쓰기를 통해 古를 추구한다는 이미지를 만들었다. 그는 허목으로부터 파생된 상고의 이미지를 남인의 세력 결속과 명분 획득 등에 정치적으로 활용 함으로써 남인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였다.

채제공은 清南을 중심으로 시회를 열되, 탁남, 북인 등을 규합하여 남인 세력의 외연을 넓혔다. 그는 己戊餘種이라고 불리는 남인 세력에 청남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였다. 그는 또한 시회에서 시문을 단련하여 동당의 후배 가운데 많은 문과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채제공은 중앙 정계에서의 상대적 열세를 嶺南 남인의 지지로 극복하였다. 그는 영남 남인의 묘도문자를 작성하면서 영남 남인이 소외되는 현실을 개탄하고 능력에 따라 영남 인재들이 등용되었던 과거의 사례를 당위로서 제시하였다.

당시 정조는 宗統을 부정할 수도 생부에 대한 사적인 정을 포기할 수도 없는 처지에 있었다. 정조는 정치적 구상을 간단히 글로 남기고 이것을 신하들이 더욱 구체적으로 구현하도록 하였다. 김종수는 정조가 즉위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반대 세력을 제거할 때 그에 필요한 논리를 마련한 인물이

다. 채제공은 정조가 사도세자에 대한 私情을 표할 때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어준 인물이다. 김종수는 청류라는 명성을 이용하여 대의명분을 표하거나 조정의 의리를 진작시키는 글을 올렸다. 채제공은 평소 남인의 세력을 결속하는 글쓰기를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결속을 바탕으로 사도세자에 대한 崇奉여론을 조성하였다.

김종수는 노론 청류 세력을 義理의 주도 세력으로 확립시켰고, 채제공은 정파로서의 세력이 미약했던 남인을 탕평정국의 일원으로 세력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요컨대 그들은 글쓰기를 통해 본인과 정파의 이미지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축하고 이 이미지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과정에서 본인과 정파의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반면 다른 정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규정하여 분별과 배제의 논리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김종수와 채제공은 각각이 속한 정파인 노론 청류와 남인 세력이 정국을 주도할 당위성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박사학위 논문

金剛山 傳說의 文獻傳承 研究

다쓰노 사요

2013년 2월 고전문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권두환

본 연구는 금강산 전설의 유형과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금강산의 종교적 표상성과 금강산 표상의 역사적 변모를 규명하는 데에 논의의 목적을 두었다.

금강산 전설은 금강산 내에 거주했던 승려나 금강산 주변에 거처했던 주민들, 그리고 일시적으로 금강산을 방문했던 유람객들에 의하여 전승되었다. 고려 후기 이래 금강산은 산수 유람의 명소로 자리매김하였다. 자연스레 적지 않은 사대부들이 금강산을 방문하기에 이르렀다. 금강산 전설의 주요 전승자인 동시에 유람객의 안내를 담당해야 했던 승려나 주민들은 자기들이 공유하고 있던 전설들을 적극적으로 유람객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렇게 금강산 전설을 접한 유람객들은 금강산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들을 기행문이나 한시 속에 담기도 하였다. 그 결과 많은 문헌에 기록된 금강산 전설은 지역과 시대를 넘어 활발하게 전승될 수 있었다.

금강산 전설은 크게 불교 유형과 도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불교적 색채의 전설이 많은 까닭은 금강산이 담무갈보살(曇無竭菩薩)의 진신이 머무는 불국토로 추앙을 받았고 산내 곳곳에 사찰과 암자 등 불교 유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금강산에서는 『화엄경』에 나오는 금강산의 주불인 담무갈보살, 인도에서 바다를 건너 전래된 유점사(楡岾寺) 53불, 보덕암(普德庵)에 봉안된 관음보살에 관한 이야기들이 꾸준히 전승되었다. 사람들은 금강산에 부처의 진신이 있다고 믿어왔던 것이다.

금강산 전설 중에는 도가적 색채의 전설, 곧 신선의 자취를 찾거나 신선 세계에 있다는 동식물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적지 않다. 특히 사선(四仙)이나 경순왕(敬順王) 태자, 양사언(楊士彦) 등은 과거에 금강산에서 등선한 인물로 전승자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또 금강산에 있는 신기한 동물이나 식물을 학이나 불로초로 전승함으로써 금강산에 신선세계를 구현하려 했다.

불교적, 도교적 색채의 전설에 재래 종교나 유교 등 여러 종교가 얹히면서 서로 갈등하거나 습합하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비롯된 복합적 성격도 금강산 전설의 주요한 특성 중 하나이다. 특히 금강산의 주불인 담무갈보살이나 53불은 자연재해에서 승려들을 지켜주는 수신(水神)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담당하였다. 또한 금강산에서 수행한 고승 진표(眞表)나 인도 승 지공(指空)과 법력 대결을 한 김동거사(金同居士)는 후대 전승에서 사대부적, 도사적 성격을 겸한 불제자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즉 금강산 전설은 특정한 종교 사상에 바탕을 두면서도 여러 종교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금강산이 특정 종교의 사상만으로 해석되지 않는 복합적인 종교적 표상성을 가졌음을 암시한다.

금강산이 지난 종교적 표상성은 한반도가 겪어 온 역사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변모하였다. 금강산은 고대에도 신령한 성소로 인식되어 국가적인 제사의 대상이 되었고 수행자들의 발길이 모이는 성소가 되었다. 그런데 금강산은 특히 한반도가 내우외환의 어려움을 겪었을 시기에 그 당시 유행하던 종교의 성지로 확립되어 나라와 민중들을 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먼저 12세기부터 14세기까지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거란이 침공하는 한편, 원나라가 내정을 간섭하기 시작하면서 고려에서는 화엄사상이 유행하였고 이에 따라 금강산은 담무갈보살이 머무는 불국토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후 불국토로서의 금강산은 원나라나 명나라에 알려지는 등 국외에서 두터운 신앙을 받기도 하였다. 그 후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전반에는 왜란을 시작으로 심각한 기근과 호란에 의한 국난을 겪으면서 신선사상이 유행하였다. 그 결과 금강산은 삼신산(三神山)의 하나인 봉래산(蓬萊山)으로서

새로운 표상성을 획득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모를 통해 금강산은 여러 종교적 요소를 습합하였으며 복합적인 성소로서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에 이르렀다. 사람들은 금강산 유람을 소원하였고 금강산을 구경한 지식인들은 자신의 유람체험을 적극적으로 문학작품에 반영하였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금강산의 아름다운 경치가 대중매체를 통하여 대중들에게 소개되었다. 나아가 금강산이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대중성을 획득하게 되었다. 그런데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금강산은 한반도를 분단하는 경계 지역이 되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그만큼 금강산에 대한 그리움도 사람들 마음속에서 커져갔다. 현재 금강산은 한반도, 그리고 한민족을 대표하는 영산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뚜렷이 그려지고 있다.

석사학위 논문

『천변풍경』의 정치성 연구

임미주

2013년 8월 현대문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박성창

이 논문은 박태원의 『천변풍경』에 내재된 정치적 성격을 살펴봄으로써, 박태원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유기적 관련성을 ‘정치성’의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작업은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소설의 정치성을 일부 밝혀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천변풍경』은 박태원의 대표작으로, 기존 연구에서 기법의 새로움, 인물들이 보여주는 휴머니티 등이 그 성과로 인정된 바 있다. 반면 내용적인 측면에서 『천변풍경』은, 모더니즘 소설이 갖는 미적 자의식의 성취에 도달하지 못한 작품으로 치부되거나, 세계관의 부재로 리얼리즘 소설로서의 완성도 이루지 못한 작품으로 비판받아 왔다. 그러나 모더니즘 문학의 정치성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이를 살필 경우, 작품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부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에서는 먼저 정치성의 개념을 재정의 하고, 이를 작품 배경으로서의 공간, 등장인물, 서사 기법의 층위에 적용해 논의를 진행해 보았다.

지금까지 한국 근대문학에 있어서 ‘정치성’은 카프를 위시한 리얼리즘 문학의 전유물처럼 인식되어온 경향이 있다. 이때 문학의 정치성은 현실 상황을 정치적으로 인식해 작품 안에 반영하거나 작가의 정치적 의식을 표현하는 것만을 의미한다. 그러나 모더니즘 문학의 정치성은 다른 측면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정치성이라는 개념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랑시에르는 정치를 ‘감각적인 것’을 재분배하는 장치로 인식하면서, 그 과정에

서 ‘비가시적으로 치부된 대상들’을 무대화시키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다. 여기서 감각적인 것의 재분배로서 예술은 궁극적으로 통치를 무화시키고, 새로운 정치를 스스로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천변 풍경』을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정치성을 보는 시각과는 차이를 갖는 ‘문학의 정치’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었다.

먼저, 2장에서는 작품의 공간적 배경이 갖는 정치성을 고찰해 보았다. 『천변 풍경』은 이미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공간의 기능이 두드러지는 작품이다. ‘천변’은 실제 당대 현실이 반영된 공간이기도 했지만, 박태원은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았다. ‘천변’이 전통과 근대, 제국과 식민, 자본과 착취가 뒤섞인 중층적 공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그 틈새로부터 가능성의 공간을 모색한 것이다. 이러한 틈새를, 도시를 ‘변증법적 이미지’로 본 벤야민의 개념을 빌려 ‘문턱 영역’으로 규정한 뒤, 근대가 불법으로 규정한 매춘이나 도박이 갖는 양가적인 의미가 변증법적 사유를 통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공간으로서의 ‘천변’은 작품 안에서 장마와 같은 장치들로 위계가 무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서사 공간에서는 법과 질서의 통제 아래 위치하면서도 그로부터 배제되는 공간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인물들이 세계와 불화하는 방식에서의 정치성을 찾고, 이를 대중이라는 범주로 묶어 파악하고자 하였다. KAPP 문학에 반하는 입장을 자주 표명했던 박태원은 의외로 러시아 소비에트 문학을 신문에 소개하면서 주인공이 없는 형식을 고평한 바 있다. 『천변 풍경』 역시 주인공은 부재하면서도 다양한 인물군을 등장시키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이는 그전까지의 소설에서 도시 공간의 근대성이나 지식인의 내면만으로 그려낼 수 없었던 서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중을 제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천변 풍경』의 대중은 박태원의 초기 소설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군중의 연장선상에 위치하며, 후기 대중·통속 소설이나 역사소설의 인물군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의의를 갖는다. 또한 감각적인 것에 주목하는 ‘문학의 정치’라는 기제 안에서 더욱 중요시되는 것은, 자신의 감각을 드러내며 새롭게 주체화되는 인물

들이다. 이전까지 논의되었던 아이, 여성 인물군에 더해 ‘천변의 깍정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갖고 목을 갖는 과정을 살펴 그 정치적 의미가 드러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천변풍경』의 독특한 특성으로 지적되어온 구술성을 근대 소설 형식과 이야기꾼의 회복을 결합하려는 시도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박태원은 과편화된 대중을 연대시키기 위해, 독자와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이야기꾼의 회복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며, 구술적 상황이나 구술성이 서사 기법으로 부각되는 이유 역시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기존 연구가 『천변풍경』 이후 박태원 소설이 서구적 의미의 모더니즘 소설에 부합하지 못하고 결국 통속화 된다고 평가해온 것과 다르게, 오히려 서구 소설의 기법적 한계를 전통적 서사 양식과의 변증법적 결합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상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박태원 소설을 통해 정치성을 분석하고자 한 본 논문의 문제 의식에서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석사학위 논문

강신재 문학 연구

나 보령

2013년 8월 현대문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방민호

이 논문은 강신재 문학의 주된 바탕을 형성하고 있는 두 줄기, ‘여성’과 ‘전쟁’의 문제에 주목해 1970년대 이전 시기까지 발표된 강신재 소설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신재 문학을 논하는 데 있어 간과할 수 없는 두 요소는 그가 식민지 시기 성장하여 한국전쟁을 전후한 무렵 등단한 이른 바 전후 신세대 작가이자, 여성 작가라는 사실이다. 즉 강신재 문학 연구는 그와 같은 시기 활동한 여타 전후 작가들의 문학과 공유되거나 구분되는 특질과 함께, 여성 작가의 문학으로서 획득하고 있는 여성성에 대해 규명하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우선 1920년대 출생 여성 작가로서 강신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은 일련의 세대적 체험이 그의 의식구조 및 문학세계에 끼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해 우선 주목한 것은 일제 말기의 식민지 여성 교육이다. 1930년대 말~1940년대 초 식민지의 엘리트 여성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강신재가 받은 ‘양치현모주의’ 여성 교육은 강력한 젠더 규범을 통해 천황 중심의 강화된 부계 질서 및 탈정치화된 가족주의의 테두리 내에 위치하는 양치현모로 당대 여성들을 호명함으로써 이 세대 여성들의 전반적인 보수화 경향을 초래하였지만, 그 심층에서는 깊은 갈등 인식과 함께 강신재가 아내나 주부의 역할을 넘어 문학 창작을 고민하게 만든 직접적 계기로 작동하였다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 그는 등단작 「얼굴」에서부터 양처 되기의 강박과 그 실패에서 오는 좌절감으로 인해 미쳐버린 여성에 대해 서사화하는데, 이처럼 강력하게 훈육 받은 여성성과의 불화로 인해 히스테리하게 일그러진 여성상은 이후 강신재의 창작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며 뚜렷한 계보를 구축한다. 「양관」, 「이브변신」, 「점액질」 등이 모두 이 계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작품들은 대개 정숙한 아내의 역할에 충실했던 여성 인물이 남편의 외도라는 예상치 못한 사건을 계기로 자기 안의 분열을 인식하는 서사를 공유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여성 인물의 억압된 섹슈얼리티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표출되는 과정이 수반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처럼 자신이 내면화한 여성상 내지 이데올로기로부터 기만 당하고, 자기 안의 분열을 인식하게 되는 강신재 소설의 여성 인물들은 그 같은 각성이 남편의 외도 등과 같은 외부적 사건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며, 자신의 분열을 자각한 이후에도 주체적, 독립적으로 새 삶을 일구어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주기보다 극단적인 광기에 귀착된 채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그 소극성을 지적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강신재 소설에서 또 다른 계열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여성 예술가 소설이다. 「정순이」, 「눈이나린날」, 「병아리」, 「안개」를 포함해 길게는 「빛과 그림자」까지 지속하는 그것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살아가는 여성 예술가들의 경험을 전면화함으로써 여성의 예술적 욕망이 현실에서 어떻게 곤잘 좌절당하고 억압되는지에 관해 서사화한다. 주목할 점은 이 계열에 해당하는 여성 인물들의 경우 앞서와 달리, 특별한 외부적 사건이 계기가 되지 않더라도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에게 종속된 채 살아가는 자신들의 삶에 내재하는 문제에 대해 비교적 주체적으로 자각하고, 이를 문제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이 일련의 여성 예술가 소설들에서 표면화되는 이들의 강렬한 예술적 욕망, 즉 자신의 내면에 대해 언어화하고 싶어 하고, 그림이나 음악 등의 예술로써 표출하고 싶어 하는 욕망은 앞서 살핀 여성 인물들의 소극성이나 병리성과 대조되는 것인 한편, 작가 강신재의 예술적 욕망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편, 강신재의 세대적 체험과 관련해 이 논문이 주목한 또 다른 문제는

‘전중파(戰中派)’ 세대 여성으로서 그가 겪은 두 차례의 전쟁 체험이다. 1944년 결혼과 동시에 학병에 징집된 남편과 이별하게 된 그는 후방의 여성 가장이라는 위치에서 태평양전쟁과 해방을 맞는다. 이 시기 남편이 부재하는 가정에서 그가 견뎌야 했던 공포와 고독감, 동시에 여성 가장으로서 느낀 강한 책임의식은 그의 내면에 강렬한 외상으로 각인되었고, 무엇보다 막 기성세대에 진입하였을 무렵 겪게 된 한국전쟁 당시 유사하게 재생됨으로써 그의 문학의 또 다른 축을 형성하는 테마로 자리하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논문은 그것이 비단 강신재 뿐 아니라, 박경리, 손소희 등 1950~60년대 활동한 전후 여성 작가들의 소설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여성 전후 소설의 외상이라고 보았다.

이 같은 전쟁 체험을 수용하며 강신재 문학은 전쟁으로 축발된 여성들의 새로운 삶의 모습에 관심을 갖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실제 그는 1950년대 발표된 거의 모든 작품들에서 전시/전후사회 속 여성들의 삶, 특히 여성 가장의 삶의 모습을 같은 시기 활동한 다른 어떤 작가보다 폭넓게 서사화하고 있다. 그 중 「그모녀」나 「동화」 등 비교적 이른 시기 발표된 작품들은 여성 가장이 된 구체적인 경위나 성격 면에서는 상이한 인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남성 가장을 잊고 생계에 내몰린 여성들의 모습을 인상적으로 그리는 데 치중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반면, 1950년대 중후반에 이를 경우 전후사회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삶과 내면에 보다 밀착한 작품들을 통해 전쟁이라는 총체적 폭력의 세부에서 여성에게 가해졌던 젠더화된 폭력에 주목하는 경향이 감지된다. 전후사회의 모성 이데올로기가 여성에게 정서적 폭압으로 작동한 측면을 모성을 거부하고 자살하는 극단적인 여성 가장의 형상을 통해 제시한 「상흔」, 「옛날의 금잔디」, 모성 이데올로기로 호명되지 않는 여성들을 타자화하는 민족주의 담론을 분명하게 전도하는 방식으로 창작된 「해결책」, 「해방촌 가는 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등단 초기부터 표방하였던 여성주의적 글쓰기의 지속 이자, 작가가 실제 여성으로서 전쟁을 경험하였고, 전후사회를 살아가는 여성 가장들의 삶과 그 내밀한 감정의 심연에 천착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한편, 1960년대 창작된 작품들의 경우 꼭 여성의 문제 만에 초점 맞추기보다, 오히려 ‘아프레게르(Après-Guerre)’, 즉 전쟁을 겪으며 성장한 후속세대의 내면에 전쟁의 상흔이 어떠한 방식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이들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나가는지의 문제를 주로 다룬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청춘의 불문율』, 「감상지대」, 「젊은 느티나무」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특히 전쟁이나 역사의 상흔을 완전히 소거하고 신세대의 청신한 감수성과 사랑만을 전면화한 「젊은 느티나무」의 경우 당대 대다수의 전후소설들이 여전히 전쟁으로 인한 상흔의 세계, 비탈에 선 위태로운 나무들의 세계를 그려내고 있었던 것과 반해, 시기적으로 앞선 문제의식을 보여줄 뿐 아니라, 이후 본격적인 아프레게르 여성 작가들의 문학세계를 예비한다는 면에서 그 문학사적 의미를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석사학위 논문

『을병연행록』 연구:

여성독자와 관련하여

채 송 화

2013년 8월 고전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김명호

이 논문은 담헌(湛軒) 홍대용(洪大容, 17)의 한글 연행록인 『을병연행록』을 주로 여성 독자와 관련하여 분석하고, 이로 인해 『연기(燕記)』를 비롯한 홍대용의 다른 한문 연행 기록들과는 상이한 특징들을 해명함으로써 그 독자적 가치를 부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방법을 취하였다. 첫째는 『을병연행록』을 현재까지 알려진 거의 모든 홍대용의 한문 연행 관련 기록들과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는 여성 독자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을병연행록』의 내용과 표현을 분석하는 것이다. 셋째는 다양한 글쓰기 방식을 중심으로 『을병연행록』의 문예적인 가치를 해명하는 것이다.

예비적 고찰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연행의 경위와 아울러,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홍대용의 연행 자세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행 자세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청조 중국의 현실을 새롭게 파악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 다음으로는 텍스트의 형성 과정을 고찰하여, 『을병연행록』의 창작 시기와 독자층을 추정해 보았다. 『간정동회우록(乾淨洞會友錄)』의 일본 4종을 『을병연행록』과 비교 분석해서, 『을병연행록』이 홍대용의 연행 기록 중 초기에 저술된 텍스트임을 논증했다. 또한 『계방일기(桂坊日記)』와 『흠영(欽英)』의 관련 기록에 의거해 『을병연행록』이 『연기』보다 먼저 완성된 연행록이라고 추정했다.

제3장에서는 조선 후기의 저명한 실학자였던 홍대용의 학문관에 의거하여 청나라 견문 내용을 ‘실사(實事)’, ‘실지(實地)’, ‘실심(實心)’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우선, 실학자인 홍대용은 ‘실사’에 주목함으로써 중국 여성들의 일상을 포착하여 이를 독자인 조선 여성들의 관심사로 부각시켰다. 이는 홍대용이 『을병연행록』을 읽게 될 여성 독자들을 배려한 결과였다. 물론 여성의 부덕을 강조한 대목들에서 그의 보수적인 여성관이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홍대용이 관찰 대상에 중국 여성들을 포함하고 여성적인 관심사를 집중적으로 다룬 점은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청나라를 ‘실지’ 체험하면서 홍대용의 대청 인식이 변화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홍대용은 대명의리론(對明義理論)에 입각한 존명(尊明) 사상을 숨기지 않고 표출하는 한편, 청나라 통치의 장점을 긍정했으며, 천주당을 방문하여 최신 서학(西學) 정보를 입수하고자 노력했다. 또 청나라의 선진 문물들을 심층적으로 관찰하여 그 기저 원리를 ‘대규모 세심법(大規模細心法)’으로 파악하면서, 그의 대청 인식에 균열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홍대용이 다양한 청나라 사람들과 ‘실심’으로 교유하면서, 특히 엄성(嚴誠) · 반정균(潘庭筠) · 육비(陸飛) 등 항주(杭州) 출신 선비들과 천애지기(天涯知己)의 뜨거운 우정을 맺은 사실을 살펴보았다. 또한 항주 선비들과의 학술적 토론에서 드러난 바 관용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한 홍대용의 우정론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홍대용이 제3장에서 살펴본 자신의 중국 견문 내용을 여성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구사한 다양한 글쓰기 방식들을 고찰했다. 『을병연행록』에서 홍대용은 여성들의 관심사와 직결되는 중국 문물을 상세하게 묘사했다. 또한 낯선 용어나 한시 등에는 자상한 해설을 덧붙이고,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내용은 생략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여성 독자에 대한 홍대용의 세심한 배려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홍대용은 소설적인 수법을 적극적으로 구사하여 중국 여행 체험을 생생하게 재현하고자 했다. 즉 대화를 재현함으로써 장면의 확장을 꾀하고, 서사에 유기성을 부여했으며, 등장인물의 입체적이고 해학적인 형상화를 시

도하였다. 이는 홍대용이 『수호전(水滸傳)』 등 중국 소설에 대한 조예를 갖추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홍대용이 자신의 여행 체험 중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던 청국 인들과의 교유를 충실히 표현하기 위해, 여행록으로서는 이례적으로 필담과 서신을 비롯한 다양한 양식의 글들을 대폭 도입했음을 지적했다. 홍대용은 원래의 필담을 확장 또는 축소하기도 했는데, 이는 여성 독자들의 관심사나 수준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았다. 이러한 다양한 글쓰기 방식을 보면, 『을병여행록』이 뛰어난 문예성을 성취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석사학위 논문

『명엽지해』 연구

황 소령

2013년 8월 고전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조현설

본고는 조선후기의 문인 홍만종(洪萬宗, 1643~1725)이 편찬한 소화집의 서문, 『명엽지해(蓂葉志譜)』의 소화 본문과 논평을 고찰함으로써 작품집에 드러난 작가의식을 밝히는 데 목표를 둔다.

『명엽지해(蓂葉志譜)』는 조선 후기의 소화를 수록한 작품집이며 그 당시 조선에서 하층민과 지식인들에게 향유되었던 소화들이 실려 있다. 그 이전에는 『태평한화골계전』, 『촌담해이』, 『어면순』, 『속어면순』, 『종리호로』 등의 소화집과 『용재총화』, 『어우야담』 등의 잡록집이 편찬되었으며, 중국의 소화집이나 잡록집이 조선으로 유입되기도 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탄생한 『명엽지해』는 전대 소화집을 계승하면서도 자기만의 독자적인 특징을 지닌다.

본격적인 고찰에 앞서 제2장에서는 홍만종의 생애와 소화집 편찬, 『명엽지해(蓂葉志譜)』의 형식적·내용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홍만종은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불우한 삶을 살았다. 그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지녔던 만큼 적지 않은 저술을 남겼는데, 그 중 하나가 민간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편찬한 『명엽지해(蓂葉志譜)』이다. 이어서 『명엽지해(蓂葉志譜)』의 형식적·내용적 특징에 대해 고찰하였다. 『명엽지해(蓂葉志譜)』는 서발문의 구비, 네 글자 제목의 통일, 논평의 제시와 배치, 주석과 상투적인 용어의 사용 등에서 다른 소화집에 비해 고도의 체계성과 통일성을 지니고 있다. 이 점에서 홍만종이 소화집을 체계화하려한 의도는 물론

소화집 편찬에 대한 그의 정성과 열정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명엽지해(蓂葉志諧)』의 내용은 크게 우행담과 지혜담으로 나뉠 수 있다. 우행담의 경우 주인공이 기계적으로 행동하거나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여 웃음거리가 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지혜담의 경우 주인공이 지혜와 기지로 난감한 처지를 모면하거나 상대방을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하는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명엽지해(蓂葉志諧)』에 나타난 홍만종의 작가의식을 고찰하였다. 먼저 서문에서 소화에 대한 홍만종의 의식을 볼 수 있다. 그는 소화를 매우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고 있으며, 특히 소화의 웃음 유발 기능과 근심 해소 기능을 중시했다. 아울러 홍만종은 이러한 소화의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다면 성소화도 꺼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는 태도를 견지하였으며, 바로 이 점에서 성소화에 대한 홍만종의 긍정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전대 소화의 변용에 나타난 작가의식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양한 유형의 이야기를 수록하고 있는 이 소화집은 전대 소화를 적지 않게 수용하였다. 그러나 전대 소화를 단순히 수용한 경우보다 개작한 경우가 더 많았는데, 개작 과정에서 홍만종의 작가의식을 드러낸 경우가 상당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웃음의 증폭과 인재선발 문제에 대한 고발이다. 전대소화와의 비교를 통해서 홍만종은 풍류보다 사회적·인간적 갈등의 심화를 통해 웃음의 효과를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여성의 성욕 표출과 관련된 내용은 되도록 약화시키고 남성의 잘못을 확대함으로써 웃음의 지향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는 전대 소화의 여러 이야기들을 인재선발 문제를 폭로하는 방향으로 변용하였다. 특히 인정청탁과 뇌물수수로 인한 인재선발의 불공평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명엽지해(蓂葉志諧)』의 논평을 통해서 홍만종의 작가의식을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소화와 논평의 관계를 ‘반사’와 ‘굴절’ 두 가지로 유형화하였고 굴절의 경우 빛의 전환이 있는지에 따라 ‘굴절A’형과 ‘굴절B’형으로 다시 나누어 살폈다. 홍만종은 특히 굴절의 기법을 많이 사용했는데,

즉 소화의 주요 요소에 대한 평가보다는 부수적인 의미를 부각시키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본고에서는 홍만종이 이런 기법을 통해 표리부동과 명실상위를 비판하고, 효를 특히 중시했으며 정치세태에 대한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고 보았다. 표리부동과 명실상위에서는 홍만종이 인욕을 인정하는 동시에 절욕을 권장하는 심신수양의 태도를 지니고 있었고, 명성보다는 실질을 더 중요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효와 관련하여 그는 부모의 생전이든 사후든 효를 행해야 함을 주장했고 효를 심신수양의 중요한 한 방법으로 여겼다. 정치세태에 대한 비판에서 홍만종은 주로 억울한 옥사와 모함에 대한 소화의 논평을 통해 당시 정치세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그는 본문의 부수적인 내용을 핵심적인 요소로 부각시키면서 이를 확장하여 정치세태에 대한 비판으로 전환시켰다. 홍만종이 이런 태도는 붕당정치라는 당대의 현실과 그런 현실 속에서 겪었던 정치적 시련과 관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석사학위 논문

현대 한국어 ‘-든지’와 ‘-든가’에 대한 연구:
구어 자료를 중심으로

고 비 비

2013년 8월 국어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문숙영

본고에서는 구어 말뭉치에 나타난 ‘든지’와 ‘든가’의 문법적 특성과 의미·화용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고의 논의는 총 4장으로 구성되었다. 1장에서는 본고의 연구 목적, 방법과 자료를 밝히고 연구사를 검토하였다.

2장에서는 ‘든지’와 ‘든가’의 문법적 특성을 살펴봤다. 먼저 사전의 ‘든지’와 ‘든가’에 대한 기술, 다양한 형태들과 결합할 때 ‘든지’와 ‘든가’의 문법적 지위를 논의하였다. 다음은 문법적 지위에 따라 조사 ‘든지’ 및 ‘든가’, 연결어미 ‘든지’ 및 ‘든가’와 종결어미 ‘든지’ 및 ‘든가’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특히 연결어미 ‘든지’ 및 ‘든가’의 문법적 특성을 살펴봤을 때 ‘든지’ 및 ‘든가’에 의한 문장 구성과 통사적 특성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하였다. 종결어미 ‘든지’ 및 ‘든가’의 경우는 후행동사나 후행절이 없이 단독으로 문장을 끝맺는 ‘든지’ 및 ‘든가’의 문법적 지위를 밝히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든지’는 부정 대명사와 잘 결합하는 반면에 ‘든가’는 부정 대명사와 잘 결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으며, 또한 ‘든지’에 비해 ‘든가’가 반말체 종결어미로 많이 쓰인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3장에서는 ‘든지’와 ‘든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화용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2장에서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든지’와 ‘든가’가 조사, 연결어미, 종

결어미의 문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든지’와 ‘-든가’가 조사와 연결어미로 쓰일 때 나타난 의미·화용적 특성은 종결어미로 쓰일 때 나타난 의미·화용적 특성과 차이가 있었다. 이에 따라 조사와 연결어미의 ‘-든지’ 및 ‘-든가’와 종결어미의 ‘-든지’ 및 ‘-든가’를 나누어서 그들의 의미·화용적 특성을 살펴봤다. 조사와 연결어미 ‘-든지’ 및 ‘-든가’는 모두 ‘선택’의 기본 의미와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었다. 화용적으로는 ‘선택’은 ‘공손함’을 나타내고 ‘양보’는 ‘무관심’을 나타내었다. 또한 ‘-든지’와 ‘-든가’는 모두 ‘선택’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든지’는 상대적으로 개방되어 있고 ‘-든가’는 상대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반말체 종결어미의 ‘-든지’와 ‘-든가’는 기본 의미는 여전히 ‘선택’이지만 ‘선택’의 의미는 많이 남아 있지 않고 문맥에 의해 다른 화용적 의미로 실현된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반말체 종결어미의 ‘-든지’와 ‘-든가’는 모두 ‘제안’과 ‘타박’의 화용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든지’는 얼버무리는 혼잣말에 가깝기 때문에 ‘타박’의 의미는 상대적으로 약하고 ‘-든가’의 ‘타박’ 의미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났다.

4장에서는 본고의 논의를 요약하였다.

석사학위 논문

용언의 단음절 한자 어근에 대한 통시적 연구

張會見

2013년 8월 국어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장소원

현대한국어에 나타나는 단음절 한자 어근을 취하는 용언에는 ‘급(急)하다’, ‘탐(貪)하다’와 같은 ‘X하다’형과 ‘겁(怯)나다’, ‘이(利)롭다’와 같은 ‘Xy다’형이 있다. 그런데 중세한국어 시기의 단음절 한자 어근 용언은 대부분 ‘겁(怯)하다’, ‘이(利)하다’과 같이 ‘X하다’형으로 나타난다. 본고는 이러한 현상에서 출발하여 용언의 어근이 될 수 있는 단음절 한자 형태소가 한국어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은 형태·통사·의미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자가 한국어에 차용되는 과정을 설명할 때, 그간의 연구에서는 한자의 본래 품사와 상관없이 명사 상당어로 한국어에 차용된다는 관점이 일반적이었다. 그래서 ‘X하(하)다’ 용언은 명사 X에서 파생된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 (예: 怯 → 怯하다). 원어에서 체언(명사)과 용언 두 가지 용법을 가진 한자 형태소가 한국어로 들어올 때 먼저 체언(명사)으로 차용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원어에서 용언으로만 쓰인 한자 형태소가 한국어에 차용되면서 체언(명사)의 쓰임을 가지게 되는 현상은 지금까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통사적 차원에서 외래어 수용 과정을 바라볼 때에는, 이 두 가지 경우를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차용 과정에서 품사 변용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품사의 변용 현상은 한국어의 한자 수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자 ‘X하다’ 용언이 ‘Xy다’ 용언으로 변화하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통사적 차원에서 한자가 한국어에 차용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단

음절 한자 형태소가 한국어에 차용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품사 변용 현상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중세한국어 문헌 자료에서 나타난 ‘X호다’ 용언을 수집하여 이들이 근대한국어와 현대한국어에서 쓰인 형태와 비교함으로써, 통시적 어형 변화에 따라 ‘X호다’ 용언들을 유형화하였다. 또한 각 유형 단어들의 사용 양상의 변천을 살펴보면서, ‘X호다’ 용언이 ‘Xy다’ 용언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한자 형태소의 통사적 지위의 변화를 강조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흔히 ‘X하다’ 용언이 명사 ‘X’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설명해 왔지만, 본고에서는 ‘X’가 단음절 한자 형태소일 때 ‘X호다’ 용언이 명사 ‘X’보다 일찍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을 밝힐 것이다. 이를 통하여 명사 ‘X’가 ‘X호(>하다)’에서 역형성된 것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논의 과정에서 중세 및 근대 자료를 선택할 때에는 가능한 한 한문 원문(漢文 原文)을 참조하고자 하였으며, 한문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직역체(直譯體) 자료를 되도록 피하고 비교적 자연스러운 중세·근대 한국어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